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4일 미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단속으로 9명의 직원이 체포된 올스턴 세차장. 6일 오전 현재는 영업중이지만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활동가들의 모습에서 지난 이민단속의 여진을 느낄 수 있다. 단속에 대한 공포가 지역사회 내로 스며들고 있다

## 한식당 밀집한 올스턴서 세차장 급습, 이민단속...직원 9명 체포

보스톤에서 최대 규모의 사업체 단속, 커뮤니티 충격  
이민단속국 압수수색영장 피해 세차장 외부서만 이민자 체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1월 4일 오전 한인 사업체가 밀집한 올스턴 소재 '올스턴 카워시(Allston Car Wash)' 를 급습해 근무 중인 직원 9명을 체포했다. 이번 단속은 히스패닉 직원들에게 집중됐으나 그 여파는 올스턴 이민사회 전체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스톤글로벌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ICE는 실내 접근시에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 일대에서 이뤄진 이민단속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단속이다. 이 신문은 당시 22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었으며, 그중 세차장 외부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 9명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체포된 직원은 여성이 6명이며 남성이 3명이다.

ICE는 실내 접근시에 >> 6면으로 계속

## 미기업, 올해 10월까지 100만 명 넘는 직원 감축... 전년 대비 65% 증가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기업들이 올해 들어 10월까지 1백만건 이상의 감원을 발표했으며 10월 한달 들어서만 15만건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1월 6일 민간 컨설팅 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Challenger, Gray & Christmas)의 보고서를 인용해 총 1,099,500명이 감원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늘었고, 2024년 한 해 동안 발표된 761,358건보다도 44% 많은 규모다.

보고서는 매달 기업의 감원 계획을 집계한다. 현재 연방정부 섣다운으로 공식 고용지표 공개가 중단되면서 투자자와 정책당국은 이 같은 민간 자료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10월 한 달 동안 감원은 153,074건으로 9월(54,064건)의 약 세 배에 달했다.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인공지능(AI) >> 10면으로 계속

**THE PRO REALTY GROUP** 수잔리 부동산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선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애널리스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주저하지 마세요!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마이클리 모기지**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지금 이 채용자 기회!  
내 집 마련과 투자까지 책임집니다!  
저금리 융자 · 채용자 전문, 맞춤형 금융 솔루션으로  
최적의 결과를 드립니다.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NMLS 1464242  
978.314.8818 mtgwithmike@gmail.com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GMCC, NMLS 254895

Disclosure: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is an Equal Housing Lender. We do not discriminate based on race, color, religion, national origin, sex, disability, or familial status. Licensed Mortgage Banker-NYS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 This is not a commitment to lend. Terms and conditions apply. All loans subject to underwriting approval.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 평통회장에 이강원 로드아일랜드대 교수 임명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 보스톤지역협의회 제 22기 회장에 이강원 로드아일랜드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한국시간) 이해찬 수석부위원장(전 국무총리)을 비롯해 부의장 운영위원 등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총 22,824명이다. 제 21기 보다 840명(3.8%) 증원된 숫자이며 △해외는 137개국 재외동포대표 4,037명, △국내 지역대표인 지방의원 3,066명과 직능대표 15,721명으로 구성됐다. 위촉된 제22기 자문위원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 동안 국내외에서 활동한다.

보스톤지역협의회 이강원 회장은 이금주 위원을 간사, 전승희 위원을 공공외교분과위원장, 그리고 임국희 위원을 여성분과위원장에 각각 임명했다. 청년분과 위원장과 나머지 두 분과 위원장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이강원 회장은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임원진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평통을 이끌어 갈 것" 이라고 말하고 "보스톤

및 뉴잉글랜드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도움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이번 평통회장 인선에 일부 평통위원은 이강원 회장이 21기 평통위원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한문수 21기 보스톤협의회 회장은 "이강원 회장의 인품과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임원진들이 합류했으므로 22기 보스톤협의회를 훌륭하게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하고 "22기의 뛰어난 활약을 기대한다" 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평통 사무처는 해외 자문위원의 경우 평화통일 공공외교 및 국외 중심 실용외교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중 68.3%인 2,757명은 재외공관 별로 실시한 자문위원 후보자 공모 및 추천위원회를 거쳐 위촉했다. 이를 통해 추천 절차의 민주성과 개방성을 제고하고,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기했다.

특히 거주국 주류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 등 K-Culture와 연계한 공공외교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했고, 국제사회에서 우호적 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 〈전체 기사 읽기〉



계획이라고 사무처는 밝혔다.

한편, 이번 위촉에는 다양한 이력을 가진 국내외 인사들이 참여하여 제22기 자문회의 구성의 다양성을 더했다.

한국내에서는 청년 참여공모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인 18세 고등학생, 방송국 공채 개그맨, 고려인 출신 기업인, 몽골 출신 귀화인 대학생 등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눈길을 끌었다.

해외 자문위원으로는 평화의 샘물 ODA 프로젝트 추진인사, 한글투표용지 도입 캠페인 기획자, 한글학교 교장, 한중 합작드라마 제작자, 불쇼이발레단 단원, 재즈피아니스트, 입체예술가 등 글로벌 코리아 리더들이 참여했다.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에는 이재수 위튼 뷰티서플라이 대표가 임명됐다.

# 보스톤산악회, 11월 15일 제18차 정기산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가 오는 11월 15일(토요일) 뉴햄프셔의 초코쿠아산(Mt. Choconua)으로 제18차 정기산행을 나간다.

이번 산행의 난이도는 5단계 중 4.5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참가자들의 등반 경험과 체력에 따라 A, B, C조로 나누어 운영된다.

A조는 파이프 트레일 (Piper Trail)-위타무 트레일 (Weetamoo Trail)-해몬드 트레일 (Hammond Trail)-리버티 트레일 (Liberty Trail)을 따라 짐 리버티 캐빈을 경유해 정상에 오른 뒤, 파이프 트레일을 통해 하산하는 총 9마일 코스다. B조는 당일 대장의 지시에 따르며 C조는 짐 리버티 캐빈까지 등반한다.

준비물로 등산화 착용은 필수다. 또한 배낭, 방풍의, 우의, 장갑, 모자, 스틱, 식수, 헤드랜턴 및 간편중식이 필요하다. 특히 정상 기온 변화에 대비해 겨울 장갑과 모자, 바람막이, 따뜻한 모자달린 재킷을 준비해야 한다. 초보자는 B조 또는 C조 참여를 권장하며, 먼 티셔츠나 청바지 등은 삼가고 드라이핏(Dry Fit)과 같은 기능성 의류를

### 〈전체 기사 읽기〉

착용해야 한다.

산행당일 집결 시간과 장소는 오전 6시, 93번 뉴햄프셔 출구 2번 파크앤라이드에 위치한 보스톤익스프레스버스터미널 Boston Express Bus Terminal이다. 차비는 1인당 20달러다.

산행 당일 집결은 오전 6시 뉴햄프셔 세일럼의 Boston Express Bus Terminal(10 Raymond Avenue, Park & Ride, I-93 Exit 2) 주차장에서 진행된다. 교통비는 20달러이다.

산행 신청은 11월 13일(목)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몸살이나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산행을 취소해야 하며, 참가자들은 A·B·C 중 원하는 조, 차량운행 여부를 신청 시 함께 밝혀야 한다. 급한 사정으로 불참 시에는 반드시 연락해야 한다.

한편 이번 산행은 기상 상황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전날 보스톤산악회 홈페이지(cafe.daum.net/boston-mountaineers)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는 617-780-9588에 하면 된다.

서울설렁탕 겨울 특선메뉴

## 사골 떡만두국

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JUNG KWAN JANG

정관장에서 만든 믿을 수 있는 공진단 정관장 "황진단"

Korean Red Ginseng Powder	1,360 mg
Korean Red Ginseng Extract	80 mg
Phellinus Linteus Extract Powder	120 mg
Deer Antler Extract Powder	120 mg
Korean Angelica Extract	120 mg
Cornus Officinalis Powder	120 mg

정관장 황진단은 홍삼총 상위 2%로 선별된 지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녹용, 칠당귀, 신수유, 상항버섯 등 귀한 부원료를 조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부드러운 여름 지치고 무기력한 몸에 활력을 주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MART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781-238-0303 전화주문 서비스  
별첨 단권 고객센터 권역권 위치 \$150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

# 한미예술협회 연례 전시회

## 섬유 미술가 이정희 작가 초대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수상원 객원기자, 편집부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가 12화째를 맞는 연례 미술 전시회를 오는 11월 8일부터 11월 23일까지 렉싱턴 아트 앤 크래프트 소사이어티에서 개최한다.

섬유미술가인 이정희(Chunghie Lee) 작가의 초대전으로 <My Cup Overflows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제목 아래, 한국의 전통적인 보자기를 응용한 작품과 기타 섬유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정희 작가는 홍익대학교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동 대학교에서 강사를 역임하였으며, 미국 정부의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로드아

일랜드 미술대학(RISD)에서 교환교수로 재직하였다. 핀란드의 에비텍 미술 디자인 대학에서 전임강사를 역임하였으며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로드아일랜드 미술대학의 텍스타일 디자인과, 회화과에서 객원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한국의 아티스트 마을 헤이리 아트팩토리, 청주 국제 공예비엔날레, 광주 국제 미술의상 비엔날레, 대구 국제의상 컨퍼런스 등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지금까지 총 18회의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예 민속 박물관에서 <Wrapping Tradition: Korean Textile Now>를 기획·전시하였고, 한국이 주빈국이 되었던 프랑스의 유러피안 패치워크 미팅 행사에서는 4개 전시회의 선임 큐레



## <전체 기사 읽기>

이터로 일했다. 또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제 보자기 포럼 비엔날레의 총괄기획을 맡았다. 저서로는 <Bojagi & Beyond I, II>, <Needle Art> 외 다수가 있다.

관람은 무료이며, 오프닝 리셉션은 11월 9일 (일) 오후 2시부터 4시에 열린다. 이정희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소개했던 한미예술협회의 2022년 코리언 헤리티지 심포지움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채널 이름: KCS Boston, 동영상 제목: Korean Heritage -Bojagi 로 검색  
[https://www.youtube.com/watch?v=XB\\_RJM4hf70](https://www.youtube.com/watch?v=XB_RJM4hf70))

<전시회 정보>  
제12회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전시회

이정희 작가 초대전 <My Cup Overflows>

장소: Lexington Arts & Crafts Society (130 Waltham St., Lexington, MA)

전시 기간: 11월 8일(토) - 11월 23일(일)

운영 시간: 화-일 오전 11시-오후 5시, 월요일 휴관

상세 정보: [www.kcsboston.org](http://www.kcsboston.org)

## 매사추세츠 기업들 경기전망 8개월째 '흐림'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이후 가장 오랫동안 낮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산업연합(AIM)이 11월 3일 발표한 'AIM 기업경기 신뢰지수(Business Confidence Index)'에 따르면, 10월 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 46.5를 기록했다. 이는 9월보다 1포인트, 8월보다 2.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무려 9포인트 떨어졌다.

AIM은 이 지수가 50 미만일 경우 기업들이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과는 8개월 연속 50 이하를 기록한 것으로, 이런 장기 비관 구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하락세는 연방정부의 섀utdown으로 인한 경제 혼란, 관세 불확실성, 그리고 지속적인 비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 기업은 설문 응답에서 "연방정부의 중소기업들과 계약이 줄어들고 있으며, 관세는 모

### <전체 기사 읽기>

든 기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IM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사라 존슨(Sara Johnson)은 "연방 준비제도(Fed)는 경제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성장'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약화되고 있다"며 "장기 실업률 상승과 고용 둔화는 소비 지출의 핵심축인 노동시장에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AIM 기업경기신뢰지수는 1991년 7월부터 매달 140개 이상의 매사추세츠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지수는 100점 만점에 50점을 중립선으로 하며, 50 이상은 낙관적, 50 미만은 비관적 평가를 의미한다.

이 지수는 1997년과 1998년에 각각 68.5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09년 2월 금융위기 당시 33.3으로 최저점을 찍었다.

최근 연방정부 섀utdown으로 인해 공식 통계 수집이 중단되면서 경제 분석이 제약받고 있는 가운데, 매사추세츠 기업들의 신뢰 하락세는 향후 지역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신호로 해석된다.

#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http://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 미셸우 보스톤 시장 재선, 선거의 여왕인 이유

### 9월 압도적 승리 후 조시 크래프트 사퇴로 단독 출마 촉근마저 광역구 선거서 승리 도와, 강력한 파워 입증 마티 월시 전 보스톤 시장과 가상 파워 대결서 압승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 최초의 아시안 여성 시장인 미셸우(40) 시장이 4일 보스톤 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미셸 우 시장은 11월 4일 치러진 본선에서 자신의 재선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시의원 후보까지 당선시키며 보스톤 정치계에서 그녀의 강력한 입지를 과시했다.

보스톤 글로브는 미셸 우 시장을 “9월 예비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성과로 유일한 주요 경쟁자를 경선에서 물러나게 하며 그 역사에 또 하나의 이력을 더했다.”고 평가했다. 보스톤글로브는 또한 “전국적 정치 무대에서의 두드러진 활약에 힘입어 많은 이들이 보기에 그녀의 유일한 실질적 정치적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이였다.”고 치켜 세웠다.

미셸 우 재선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였다. 3월 보스톤 시장의 ‘피난처도시’ 관련 의회 청문회에서 미셸 우 시장은 뛰어난 활약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보스톤 시장 선거도 승부를 결정

지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토마스 호먼 국경 차르 등은 보스톤시와 매사추세츠에서의 강력한 이민단속으로 압박하며 특히 유색인종의 표심을 미셸 우 시장에게 보냈다.

이런 배경으로 미셸 우 시장의 당선 확정 연설은 보스톤보다는 전국적 정치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시장은 보스톤 시포트에 위치한 ‘그레이스 바이 니아’에서 열린 당선 축하 자리에서 지역적인 주제, 즉 첫 임기의 성과를 언급하며 시작됐지만 곧 트럼프와 그의 정치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혼란과 잔혹으로 점철된 연방 행정부의 배경 속에서 압력에 굴복해 물러서고, 진로를 바꾸거나 혹은 이 나라를 세운 가치에 더욱 헌신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우 시장은 말했다. “이번 보스톤 선거는 바로 그것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가 어떻게 이끌 것인가만이 아니라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처럼 행동하는 범죄자에게 우리가 무

### 〈전체 기사 읽기〉

를 꿰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250년 동안 그 답은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정가의 압박에 강력한 비판을 던지는 한편, 미셸 우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이번 보스톤 광역구 시의원(City Council at large) 선거에서 가장 취약한 후보로 간주됐던 헨리 산타나를 적극적으로 도와 당선시켰다. 특히 광역구시의원 선거는 일종의 대리전 양상을 띠었다. 우시장의 정치적 라이벌인 마티 월시 전 시장은 프랭크 베이커를 지지했고, 우 시장은 헨리 산타나를 지지했다. 또한 양쪽과 연계된 정치위원회(PAC)도 각각 상반된 후보들을 지원했다. 결과는 우 시장의 일방적인 승리로 드러났다.

이번 광역구 시의원 선거에서는 루지 루이준 시의장, 줄리아 메하, 에린 머피, 그리고 헨리 산타나가 당선됐다. 총 13명의 시의원 중 9명이 진보적 정치인들로 미셸 우 시장은 앞으로 시정 운영에 강력한 지원군을 얻게 됐다.

그러나 우 시장에게 꽃길만 남은 것은 아니다. 4년 전 우시장은 도시



개발 절차의 개편, 그린뉴딜 추진,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주민들의 비용 부담 저하 등을 내세우며 시장직을 시작했다. 이 같은 공약의 일부는 아직 진행형이다.

게다가, 도시의 주거비 상승과 주택난, 화이트 스타디움 개발비 증가, 논란이 된 자전거 도로 확장, 그리고 매스앤드캐스(Mass. and Cass) 지역의 마약중독 및 노숙 문제 등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 압박도 받고 있다.

미셸 우 시장의 다음 임기는 아마도 전국적인 정치문제가 아니 이 같은 보스톤 생활과 밀접한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문제에 집중해 좀더 유연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보스톤 언론의 공통된 시선이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채벽 SaeByuk Han 박현아 HyunAh Park 김유림 Yulim Kim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거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료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특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윈트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 기쁨을 주십시오, 위험 말고.

복권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mass.gov/YouthGamblin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MA주, 겨울철 히트펌프 요금 인하제 1일부터 시행

### 히트펌프 이용 10만 가구, 올겨울 난방비 수백 달러 절감 기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매사추세츠 주는 전기 히트펌프를 사용하는 주거용 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히트펌프 요금제'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히트펌프 요금제는 지난 3월 힐리 주지사가 발표한 '에너지 부담 완화 계획(Energy Affordability Agenda)'의 핵심 조치로, 에버소스(Eversource),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 유니틸(Unitil) 등 3대 전력회사가 주정부와 협력해 시행하게 된다.

히트펌프는 열을 직접 만들어 내는 대신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해 일반 보일러나 전기난방보다 최대 3배까지 효율이 높다. 공기열 히트펌프(air-source heat pump)는 기존 전기히터보다 난방 전력 사용량을 최대 75%

까지 줄일 수 있으며, 여름철 냉방 효율과 제습 기능도 뛰어나다.

이번 인하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매세이브(Mass Save) 프로그램을 통해 히트펌프를 설치하고 인센티브를 받은 약 10만 명의 고객에게 자동 적용됐다. 주 정부는 "이번 요금제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청정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이번 겨울 10만 명 이상이 에너지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이 청정에너지를 이용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환경청(EEA)의 레베카 탭퍼 장관은 "히트펌프는 여름철에는 전력망 부담을 줄이고, 겨울에는 효율적으로 난방을 제

**<전체 기사 읽기>**

공한다"며 "이번 계절별 요금제는 다른 고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하는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적용되며, 여름철에는 일반 전기요금과 동일한 요금이 부과된다. 매세이브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히트펌프를 설치했거나 2019년 이전 설치 고객은 각 전력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versource: [eversource.com/heat-pump-rate](http://eversource.com/heat-pump-rate), National Grid: [ngrid.com/heatpump-rate](http://ngrid.com/heatpump-rate), Unitil: [unitil.com/ma-heat-pump-rate](http://unitil.com/ma-heat-pump-rate)

히트펌프 전용 요금제는 표준 전기요금보다 낮은 계절별 배전 요금이 적용되며, 다른 일반 고객의 전기요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내셔널그리드에 따르면, 평균 전기 사용 고객의 경우 겨울철 한달에 \$70에서 \$141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주는 주민들에게 히트펌프 설치와 함께 새 계절별 요금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자세한 정보는 [Mass-Save.com/heat-pump-rate](http://Mass-Save.com/heat-pump-rate) 또는 [MassSave.com/heatpump](http://MassSave.com/heatpump)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케임브리지 노른자위 땅 식당 건물, 11월 19일 압류 경매 예정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전체 기사 읽기>**

=케임브리지 메인 스트리트(781-783 Main St.)에 위치한 한 소규모 상업용 건물이 이번 달 말 압류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0.1에이커도 되지 않는 작은 면적이지만, 피자 가게와 아시아 레스토랑이 운영되고 있다. 감정가는 약 80만 달러로 평가됐으며, 경매를 진행하는 설리번앤설리번(Sullivan & Sullivan Auctioneers)은 부지의 위치와 최근 케임브리지 시의 재개발 친화적 구역 변경을 고려할 때, 상당한 재개발 가능성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케임브리지는 지난 2월 일련의 zoning 변경안을 승인해 도시 전역에서 다가구 주택 건설을 허용하고, 최소 필지 크기(lot size) 등 허가를 어렵게 만들던 일부 요건을 폐지했다. 또한 현재는 센트럴스퀘어(Central Square) 주변을 더 높은 빌딩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고밀도 개발 zoning 변경안도 논의 중이다. 이번에 경매에 부쳐질 부지는 바로 센트럴스퀘어 구역의 동쪽 경계에 위치한다.

이 부지는 MIT가 2022년에 개소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겸 액셀러레이터 '더 엔진(The Engine)' 맞은편 대각선 위치에 있어 입지상 장점이 크다. 또한 켄달 스퀘어(Kendall Square)는 현재 도심 내 최고층 빌딩 공사와 30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켄달 커먼(Kendall Common) 프로젝트 등으로 더욱 밀집되고 있다.

이번에 경매에 부쳐질 메인 스트리트 건물에는 '프리오 피자 & 로스트 비프(Primo Pizza & Roast Beef)'와 '메이 아시안 이터리(Mae Asian

Eatery)'가 입주해 있으며, 경매일은 11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부동산은 부동산 개발업체 세네(Senné)가 소유한 법인 명의로 되어 있다. 시 기록에 따르면 세네는 2019년 이 부지를 150만 달러에 매입했다.

한편 세네가 소유했던 인근 793-805 메인 스트리트 건물은 지난 8월 경매에서 매각됐다. 과거 버투치스(Bertucci's)와 쿠치 쿠치(Cuchi Cuchi) 레스토랑이 입주했던 그 건물은 웨스트퍼드(Westford, MA) 거주자 마하르 유제레로글루 명의의 법인이 575만 달러에 낙찰받았다. 세네는 이 건물을 2019년에 430만 달러에 구입했었다.

이 두 건의 케임브리지 상업용 부동산은 최근 보스톤 지역에서 이어지는 일련의 상업용 부동산 압류 경매 사례 중 일부다.

지난 1년 동안에는 주거용 개발이 승인되었던 이스트보스톤의 한 옛 교회 부지와 찰스타운 설리번 스퀘어에 위치한 24층 타워 개발 예정 부지 등도 경매에 부쳐졌다.

올해 가장 큰 규모의 부동산 경매 거래는 3월에 진행된 보스톤 도심 36층 오피스 타워 '원 링컨(One Lincoln)'의 4억 달러 매각이었다. 11월 5일에는 보스톤 다운타운의 99베드퍼드 스트리트(99 Bedford St.)에 위치한 5층 규모의 오피스 빌딩이 경매를 통해 1,900만 달러에 매각되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 흐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hsb@bostonkorea.com](mailto: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617.742.7707**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870.0508**  
**978.870.0043**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http://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mailto: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mailto: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 한식당 밀집한 올스턴서 세차장 급습, 이민단속... 직원 9명 체포

▶▶1면에 이어서  
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세차장 실내에는 접근하지 않았다. 체포된 직원들은 모두 세차장 실외에서 일하던 직원들이었다.

세차장 매니저는 “체포된 직원들 중 상당수는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갖고 있었지만, 일부는 현장에서 신분증이나 취업허가서를 즉시 제시하지 못했다” 며 “몇몇은 서류를 사물함에 두고 왔는데, 내가 대신 가져가면 풀려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 수 없다” 고 말했다.

단속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에 시작됐으며, 목격자들에 따르면 17대 이상의 차량이 세차장을 에워싸고 출입구를 봉쇄한 뒤, 세차를 기다리던 고객들에게 모두 떠날 것을 지시했다. 매니저는 “장갑차까지 동원된 걸 보고 너무 놀랐다” 며 “우리가 테러리스트도 아닌데 이런 식의 강압적 단속은 말이 안 된다” 고 분통을 터뜨렸다.

미국 시민권자인 그는 “모든 것을 제대로 했는데도 그들은 이곳을 습격해 내가 라티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내 권리를 침해했다. 이것은 옳지 않다” 고 말했다. 옆에 있는 두 명의 직원은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지 손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이들은 단속 요원에게 신분증을 강제로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올스턴 세차장은 4일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했으나 5일부터는 단속된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민단속감시커뮤니티네트워크 LUCE의 자원봉사자들에 따르면, 최소 일부 구금자들은 별링턴에 위치한 ICE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들 중 몇 명이 같은 시설에 있는지, 또 얼마나 오래 그곳에 머물게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LUCE의 자원봉사자 아만다 아이젠하우어는 “우리는 이민 당국이

일부 사람들에게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고 말했다. 그녀는 구금된 노동자들의 가족을 직접 만났다고 밝혔다. “그들은 일부 사람들에게 자진 추방 서류에 서명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말 그대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고 밝혔다.

올스턴 지역구의 리즈 브레이든 시의원은 “단속 규모가 너무 커 충격적” 이라며 “이들은 우리 이웃이자 성실히 일하는 이민자들이다. 가족들이 이들이 어디로 끌려갔는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 고 말했다.

브레이든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이것은 단순 명확한 납치다. 이는 ICE와 트럼프 정부가 보스턴을 불법적, 보복적 표적으로 삼은 한 공포스런 현장” 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editor@bostonkorea.com



# 폴리버(Fall River)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관련 5명 체포

경찰, 일반 라이더가 아니라 도로를 막고 난동 부리는 무질서한 집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전체 기사 읽기>  
기자 = 폴리버 경찰은 지난 3일 시내에서 발생한 이른바 ‘스트리트 테이크 오버 (street takeover)’ 사건과 관련해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5분부터 6시 사이 50명에서 100명가량이 시내 도로에 모여 오토바이, ATV, 스쿠터, 더트바이크 등을 타고 난폭한 곡예 운전으로 벌이며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도로를 점거했다.

폴리버 경찰은 사건 당일 시민들이 제보한 여러 영상과 함께 현장 영상을 SNS에 공개했다.

경찰은 성명에서 “이러한 불법 집회는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며 “이들은 단순히 법을 지키며 주행을 즐기는 라이더들이 아니라, 도로를 막고 난폭하게 운전하며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방해하는 무질서한 집단”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중 상당수는 보험이 없거나 운전 경험이 거의

없어, 사고와 부상, 재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고 덧붙였다. 이번 체포 과정에서 오토바이 4대, ATV 1대, 스쿠터 1대가 견인됐다. 체포된 5명은 10대에서 30대에 이르며 대부분이 차량 부주의 운전과 경찰 명령 불응으로 체포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무면허 및 무보험 운전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은 “이른바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사태에 질렸다” 며 “공공 안전을 위해 이러한 불법적 난동에 단호히 개입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당신을 오토바이에서 끌어내리고, 차량을 견인하며, 무료로 유치장까지 태워줄 것” 이라고 경고했다.

비슷한 사건은 지난 10월 초에도 폴리버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수백 명이 도로를 점거해 구급차가 우회하도록 강요하는 사태로 번졌다. 당시에도 5명이 체포됐고, 1명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YOUNG DENTISTRY**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중은 치과, 중은 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 하버드 의대 폭발 사건 관련 매사추세츠 남성 2명 체포

**〈보스톤=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 = 보스톤 연방수사국(FBI)은 2일 새벽 하버드 의대 건물 내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과 관련해 매사추세츠주 남성 2명을 체포했다고 4일 발표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체포된 용의자는 플리머스 출신의 18세 로건 데이비드 패터슨과 본 출신의 20세 도미니크 프랭크 카도자로, 두 사람은 하버드 의대 골덴스 빌딩을 폭발물로 훼손하려 한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

FBI는 두 사람이 4일 오전 체포됐으며, 이날 오후 보스톤 연방지방법원에서 첫 출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선임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당국은 두 사람이 2일 새벽 2시 23분경 얼굴을 가리고 어두운 옷

차림으로 의대 캠퍼스로 향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어 1분 뒤에는 로만 캔들 폭죽을 점화하는 장면이, 2시 33분경에는 건물 주변 공사장 울타리를 넘어가 비계(Scaffolding)를 타고 건물 옥상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2시 45분경 건물 4층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 경보가 울렸으며, 이후 경찰은 두 사람이 4층 신경생물학과 실험실 근처에서 활동한 뒤 1층 비상구를 통해 도주하는 영상을 확보했다.

수사 결과 폭발물은 대형 상업용 폭죽으로 추정되며, 나무로 된 보관함 안에서 폭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FBI는 폭발물 성분 분석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후 3시경 카도자는 인근에서 바지를 벗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

**〈전체 기사 읽기〉**

이 포착됐고, 패터슨은 웹트위스 공대 캠퍼스 기숙사에 들어가 안내 데스크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통화하는 장면이 CCTV에 담겼다. 약 30분 뒤 두 사람은 제3의 인물과 합류해 웹트위스 기숙사에 들어가려 했으나 실패했으며, 매사추세츠 칼리지오브아트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목격자들은 두 사람이 '할로윈 행사'를 위해 웹트위스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현재까지 범행 동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버드 의대 측은 3일 성명을 통해 "폭발이 발생한 4층 복도 일부는 청소가 완료되어 정상 운영 중이며, 건물 구조적 손상은 없고 모든 실험실과 장비는 무사하다"고 밝혔다.

# 보스톤 AI 음성기술 기업 세런스, 삼성과 특허소송 합의...4,950만 달러 수령

**〈보스톤=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 = 벨링턴에 본사를 둔 AI 음성기술 기업 세런스 AI(Cerence AI)가 삼성전자와의 2년간 이어진 특허 분쟁을 마무리하고 약 4,950만 달러를 받게 된다.

보스톤비즈니스저널(BBJ)에 따르면, 세런스는 10월 28일 삼성과 교차 특허 라이선스(cross-license) 계약을 체결했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했다. 이 합의에는 삼성전자가 세런스에 지급하는 일시금 4,95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세런스 대변인 케이트 허먼은 이메일을 통해 "공시된 내용 외에는 밝힐 수 없으며,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언론의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세런스는 현재 애플과의 또 다른 특허 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세런스의 특허 분쟁은 2023년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삼성전자 상대 소송에서 비롯됐다. 세런스는 자사의 필기인식, 음성 메시징, 음성 명령 모니터링 관련 기술 특허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제품군에 무단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가 이를 "고의적이고 무모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후 2024년 세런스는 추가로 네 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은 그해 7월 세런스가 자사 특허 네 건을 침해했다며

**〈전체 기사 읽기〉**

맞소송을 냈다. 양측은 올해와 내년 4월 각각 별도의 재판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합의로 모두 취하했다.

세런스 AI는 음성인식 선도기업 뉴언스 커뮤니케이션즈(Nuance Communications)에 서 2019년 분사한 회사로, 2024년 전 인텔 CEO 브라이언 크르자니크가 CEO로 부임하면서 '세런스 AI'로 사명을 바꿨다.

뉴언스는 이후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Corp.)에 약 197억 달러에 인수됐다.

이번 합의는 세런스가 주요 글로벌 IT 기업들과의 특허 분쟁에서 거둔 첫 대규모 합의금으로, 향후 기업 가치 제고와 AI 음성 기술 연구개발 투자에 상당한 재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차 특허 라이선스(cross-license) 계약'은 서로 다른 두 기업이 각자의 특허를 상대방이 일정 조건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상호 계약을 말한다. 두 회사가 서로의 특허를 일정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보상이나 사용권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런 계약은 대형 기술기업 간 특허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서로의 기술을 활용해 제품 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자주 체결된다.

hsb@bostonkorea.com

✝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주일 미사 Lord's Day 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Weekday Ma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대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Contact 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불우한 한인 돕기 - 사랑 나누기

##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

뉴튼에 위치한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주임 신부 배웅진 크리스토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보스톤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성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부님과 사회복지사로부터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손길을 모아 물질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후원**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전화: 617-558-2711  
이메일: help@bostonkoreancatholic.org

#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 추수감사절, 감사의 마음을 담은 특별 코스 요리로 더욱 풍성하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서 보스톤의 유명 레스토랑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할 특별 코스 요리로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집에서 칠면조를 굽고 복잡한 사이드 디시를 준비하는 대신, 전문 셰프들이 선보이는 고급스러운 홀리데이 만찬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올해 2025년 추수감사절(11월 27일 목요일)에는 보스톤 전역의 레스토랑들이 전통적인 칠면조 디너부터 이탈리아, 프렌치 감성을 더한 혁신적인 메뉴까지 다채로운 옵션을 선보인다.

특히 백베이, 시포트, 비컨힐 등 보스톤의 주요 지역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들은 프리스픽스(prix-fixe) 코스 메뉴를 통해 우아한 다이닝 경험을 제공한다. 전통적인 추수감사절 요리에 각 레스토랑만의 독특한 감각을 더해,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며 잊지 못할 추수감사절을 보내보자.

다만, 보스톤에서 추수감사절 외식은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인기 레스토랑들은 빠르게 예약이 마감된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놓치지 않으려면 서둘러 예약하는 것이 좋다. 아래에서는 올해 추수감사절에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보스톤의 네 곳 레스토랑을 소개한다.

### 라 파드로나 (La Padrona at Raffles Boston), 백베이

라 파드로나는 보스톤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규 레스토랑 중 하나로, 래플스 보스톤 호텔에 위치한 이탈리아 다이닝이다. 추수감사절 당일 오후 12시부터 7시30분까지 운영되며, 1인당 150달러의 3코스 프리스픽스 메뉴를 선보인다. 애플파이저로는 가을 미스티칸자 샐러드, 참치 크루도, 타글리아텔레 에밀리아-로마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메인 코스로는 전통적인 스톤우드 팜 칠면조 구이를 허브 스테핑과 크랩 프레쉬 매시드 포테이토와 함께 맛볼 수 있다.

### 〈전체 기사 읽기〉

칠면조 외에도 숯불에 구운 가지 파르미지아나나 우니와 랍스터 리조토 같은 이탈리아 특선 요리를 선택할 수 있어,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추수감사절 경험을 선사한다. 디저트로는 애플 타르트, 뉴잉글랜드 펌킨 파이 등 다양한 선택지가 준비되어 있어 달콤한 마무리를 더한다. 백베이의 중심부에서 세련된 분위기 속에 특별한 홀리데이 디너를 즐기고 싶다면 라 파드로나가 완벽한 선택이다.

주소: 38 Trinity Pl, Boston, MA 02116  
 시간: 11월 27일 12:00pm- 7:30pm (추수감사절 당일)  
 웹사이트: <https://www.lapadronaboston.com/>

### 다비오스 (Davio's Northern Italian Steakhouse), 백베이

다비오스는 보스톤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노던 이탈리아 스테이크하우스로, 추수감사절에도 변함없는 품질의 요리를 선보인다. 11월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성인 85달러, 12세 미만 어린이 30달러의 프리스픽스 메뉴를 제공한다. 메뉴에는 버몬트산 프리레인지 유기농 칠면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전통적인 사이드 디시가 함께 제공된다. 살타 허브 스테핑, 유콘 골드 포테이토, 버터넛 스쿼시, 아스파라거스, 크랜베리 소스와 그레이비가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다.

디저트는 15달러로 별도 주문이 가능하며, 바닐라 젤라토를 곁들인 애플 파이, 샹티크림을 올린 펌킨 파이, 버번 젤라토와 함께 나오는 피칸 파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다 음날을 위한 '투모로우즈 터키 샌드위치' 도 테이크아웃으로 주문할 수 있어, 추수감사절의 여운을 이틀간 즐길 수 있다.

주소: 75 Arlington Street, Boston MA 02116  
 시간: 11월 27일 11am- 8pm (추수감사절 당

일)  
 웹사이트: <https://davios.com/bos/events/thanks-giving-dinner>

### 마트리아 (Matria at InterContinental Boston), 시포트

인터콘티넨탈 보스톤의 매트리아는 북부 이탈리아 스타일의 스테이크하우스로, 포트 포인트 채널의 아름다운 워터프론트 뷰를 자랑하는 레스토랑이다. 추수감사절 당일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성인 185달러, 6-12세 어린이 80달러(세금과 팁 포함)의 화려한 뷔페 스타일 추수감사절 디너를 선보인다.

진저 에이콘 펌킨 수프와 버터넛 스쿼시 & 데이트 샐러드로 시작해, 이탈리아 큐어드 미트와 치즈, 시그니처 브레드, 스시 바 등 다채로운 애플타이저를 즐길 수 있다. 메인 코스에서는 체스넛과 애플 스테핑을 곁들인 로스트 칠면조, 피에몬테제 랍아이 스테이크, 파치먼트로 구운 허니 머스터드 대서양 연어 등을 카빙 스테이션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화이트 볼로네제 리가토니 같은 이탈리아 요리도 준비되어 있다.

디저트로는 티라미수, 솔티드 카라멜 카놀리, 시즌 파이 등이 포함된 풍성한 디저트 뷔페가 제공된다. 보스톤 워터프론트의 멋진 전망과 함께 이탈리아 감성이 가미된 추수감사절을 경험하고 싶다면 매트리아가 최고의 선택이다.

주소: 510 Atlantic Ave, Boston, MA 02210  
 시간: 11월 27일 12:00pm-6pm (추수감사절 당일)  
 웹사이트: <https://www.matriaboston.com/>

페레그린 (Peregrine at Whitney Hotel), 비컨힐  
 휘트니 호텔에 위치한 페레그린은 비컨힐의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추수감사절 특별 메뉴를 선보인다. 11월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

시까지 운영되며, 95달러의 3코스 프리스픽스 메뉴를 제공한다. 이그제큐티브 셰프 나폴레옹 스미스가 선보이는 메뉴는 다종 메이플 로스티드 브뤼셀 스프라우츠, 코코넛과 진저 펌킨 비스크 같은 가을 풍미의 애플타이저로 시작된다.

메인 코스로는 전통적인 로스트 칠면조와 터키 주스, 허브 콘브레드 스테핑이 포함되어 있으며, 삼페인 비르 블랑 소스를 곁들인 팬 서드 연어나 머쉬룸 셀 리조토도 선택 가능하다. 디저트로는 전통적인 펌킨 파이와 함께, 전혀 전통적이지 않은 애플 파이 치즈케이크가 제공되어 클래식과 모던의 조화를 즐길 수 있다. 비컨힐의 역사적인 찰스 스트리트에 위치한 페레그린은 아늑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따뜻한 추수감사절을 보내기에 완벽한 장소이다. 예약은 필수이며, 휘트니 호텔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주소: 170 Charles St, Boston, MA 02114  
 시간: 11월 27일 11am-8pm (추수감사절 당일)  
 웹사이트: <https://www.peregrineboston.com/>

위에 소개한 레스토랑 외에도 보스톤 전역에는 추수감사절에 문을 여는 레스토랑이 많다. 다이닝 옵션뿐 아니라 집에서 즐길 수 있는 테이크아웃 메뉴를 제공하는 곳도 다양해, 원하는 스타일로 추수감사절을 계획할 수 있다.

보스톤 추수감사절 2025에 영업하는 모든 식당과 테이크아웃 옵션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bostonchefs.com/holiday/thanksgiving-boston-restaurants/>

이 웹사이트에서는 보스톤과 주변 지역의 다양한 레스토랑 정보, 메뉴 가격, 운영 시간, 예약 방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완벽한 추수감사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올해 추수감사절, 보스톤의 미식 명소에서 감사와 풍요의 순간을 만끽해보자.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애프터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mailto: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http://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mailto:sj.usgtf@gmail.com)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CHOISIGNS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초이스 간판**

**617.470.1083**  
[choisigns@yahoo.com](mailto:choisigns@yahoo.com)

JUNG KWAN JANG

12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기회

#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의 건강을

11월 07일 ~ 11월 30일 (24일 간)

## 행사 1

### 홍삼정 / 에브리타임

- 홍삼정 240g (1개 이상) 구매 시, 천녹정 30g 증정
- 홍삼정 120g (2개 이상), 홍삼정 리미티드 (2개 이상) 구매 시, 천녹정 30g 증정
- 에브리타임 30포 구매 시, 10포 무료 증정(멤버스 고객 ONLY)
- \* 정240g, 정 리미티드(3개입) 구매 시, 보자기 포장 증정



\$44 상당

## 행사 2

### 뿌리삼 / 달임액/ 천녹류 (Mix & Match 가능)

- 1개 구매시 10%, 2개 구매시 15% 할인
- \* 보자기 포장 + 감사카드 증정 | \* 천삼달임액 할인 제외



## 행사 3

### 톤류 및 기호류 (Mix & Match 가능)

- 1개 구매시 20%, 2개 구매시 30% 할인
- \* 대상 제품 (총8종): 홍삼톤 골드, 홍삼톤 청, 석류홍삼, 봉밀절편, 활기력, 콜라겐 샷, 글로우 부스터 (2종)



보스턴정관장 벌링턴 H마트 204호 (3 Old Concord Rd)  
전화: 929.600.4880



# 아마존, UPS, 메타 등 미국 기업들 대규모 감원 시작됐다

**인력 부족 노동 비축(labor hoarding) 관행 종말  
실업률 4.3%로 상승...안정적 고용 시대는 막내려  
일부, 감원이 전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팬데믹 이후 인력 유지에 공을 들였던 미국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에 나서며 ‘노동 비축(labor hoarding)’ 시대의 종료를 알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일 보도했다.

아마존, 타깃, UPS, 메타플랫폼 등 주요 대기업들은 최근 몇 주 사이 수만 명 규모의 감원을 발표했다. 팬데믹 이후 인력 확보 경쟁 속에서 “직원을 잃으면 다시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절감한 기업들이지만, 최근 고용시장이 약세로 돌아서자 또

다시 인건비 절감에 나서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RSM 수석이코노미스트 조지프 브루수엘라스는 “1990년대처럼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업이 돌아가고 있다”며 “그때는 오히려 인력을 줄이는 기업이 보상 받았다”고 회상했다.

노동비축이 끝난 이유는 단순하다. 인건비는 기업이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비용 항목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에 대한 낙관론도 한몫한다. 자동화 기술의 확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사람 대신 기술’

**〈전체 기사 읽기〉**

을 택할 여지를 확대하고 있다. 연방 준비제도(연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고용주들이 “수요 약화, 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AI 투자 확대”를 이유로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

팬데믹 시기 급증한 수요에 대응해 인력을 크게 늘린 기업들도 이제 몸집이 비대해졌다고 느낀다. 아마존은 2019년 80만 명이던 직원 수가 지난해 말 150만 명으로 늘었다. 타깃은 본사 인력 1,800명을 줄이겠다고 밝혔고, UPS는 4만 8천 명의 관리·운영직을 감축했다.

흥미로운 점은 투자자들이 감원을 반기는 분위기다. 타깃의 주가는 감원 발표 당일 상승했고, 아마존이 1

만 4천 명 추가 감원을 발표했을 때 주가가 1% 올랐다. UPS 역시 실적 발표와 함께 감원을 공개하자 주가가 8% 급등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2023년 4월 3.4%로 수십 년 만에 최저치를 찍은 뒤, 2025년 8월에는 4.3%로 올랐다. 미시간대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64%가 향후 1년간 실업률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원 러시가 고용시장의 본격 하락세를 예고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제드 콜코는 “눈에 띄는 감원 숫자들이 있지만, 1억 7천만 명에 달하는 전체 노동시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I의 영향력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언젠가 AI가 업무를 대체할 것이라는 믿음 자체가 기업들로 하여금 인력을 줄이는데 주저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 월마트, 포드, JP 모건체이스, 아마존 등은 이미 AI 도입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동 비축은 특히 인재 확보가 어려운 고임금·전문직에서 두드러졌지만, 바로 그 분야가 AI로 가장 빠르게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미국 기업들은 ‘직원 지키기’ 대신 ‘효율적 감축’의 시대에 들어섰다. AI와 경기 둔화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가운데, 팬데믹 이후의 고용 안정기는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다.

## 트립어드바이저, 구조조정 단행 대규모 해고 눈앞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근교에 본사를 둔 여행 정보 플랫폼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다.

보스톤 비즈니스 저널의 5일 보도에 따르면, 여행 메타서치 기업 트립어드바이저는 두 개의 핵심 사업 부문을 통합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상당 규모의 인력 감축을 계획 중이다.

여행 전문 매체 스킵프트(Skift)는 트립어드바이저가 행동주의 투자펀드 스타보드 밸류(Starboard Value)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스타보드는 벨링턴에 본사를 둔 커피·음료 대기업 큐어리그 닥터페퍼(Keurig Dr Pepper)의 주요 주주이기도 하다.

**〈전체 기사 읽기〉**

보도에 따르면 트립어드바이저는 자사의 핵심 세 부문 가운데 여행 후기와 가이드를 제공하는 전통 플랫폼 브랜드 트립어드바이저(Brand TripAdvisor)와 투어 및 액티비티 예약 플랫폼 비에이터(Viator)를 통합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엔지니어링팀의 상당수가 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립어드바이저는 이번 구조조정 보도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매사추세츠주 니담(Needham, MA)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86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그 중 약 1,000명이 미국 내 근무자다.

투자자들은 그동안 트립어드바이저의 성장이 기존 여행 후기 플

랫폼보다 비에이터와 레스토랑에 약 서비스 ‘더포크(TheFork)’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비에이터 매출은 8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 더포크 매출도 1억 8천 1백만 달러로 18% 상승했다. 반면, 광고 중심의 전통 여행 플랫폼 부문은 5억 8천 5백만 달러로 11% 감소해 구글 등과의 경쟁에서 부진을 보였다.

트립어드바이저는 지난해 인수·합병(M&A)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3개월 뒤 “적절한 거래 상대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회사는 11월 6일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 미기업, 올해 10월까지 100만 명 넘는 직원 감축...전년 대비 65% 증가

**▶▶1면에 이어서**

도입, 소비와 기업 지출 둔화, 비용 상승 등을 주요 이유로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다. 업종별로는 창고·물류 부문이 약 4만 8,000개의 일자리를 줄이며 증가세를 주도했고, 기술 부문에서도 3만 3,000개가 넘는 감원이 예고됐다.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 앤드 챌린저 최고매출책임자(CRO)는 “일부 산업은 팬데믹 시기 급증했던 채용을 되돌리고 있다”며 “AI 채택 확대, 수요 둔화, 비용 상승이 허리띠 졸라매기와 채용 동결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마

존, 타깃, UPS, 메타 등의 대규모 감원을 보도하면서 팬데믹 이후 인력 유지에 공을 들였던 미국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에 나서며 ‘노동 비축(labor hoarding)’ 시대의 종료를 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달 수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감원 방침을 발표해 10월 감원 폭증을 일으킨 당사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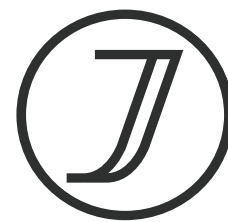
한편, 민간 급여처리업체 ADP는 전날 발표에서 10월 민간부문 일자리가 42,000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직전 두 달 연속 감소세에서 소폭 반등한 수치다.

hsb@bostonkorea.com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4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2024, 2025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2025)**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 2025년 **Boston Magazine** 선정 '최고의 에이전트'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Real Trends Verified 2024, 2025**)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 야당 압승에 드러난 美민심...트럼프 아킬레스건은 '민생경제'

강세지 승리에 의미 국한... "내년 중간선거 선전은 미지수"  
민심향배는 확실... 민생고·애국자·반기득권 등 선거 키워드 관측



미국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인도계 민주 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일반 선거에서 야당 민주당이 압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9개월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을 보여주는 성격이 있는 정치 이벤트인 만큼 다채로운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일(현지시간) 열린 뉴욕시장,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모두 쉽게 이겼다. 뉴욕에서는 사회주의자인 진보의 새 아이콘 조란 맘다니 뉴욕주 의원이 시장으로 당선됐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에비게일 스펠버거 전 연방 하원의원, 뉴저지주에서는 마이키 셰릴 연방 하원의원이 주지사에 선출됐다. 이런 결과를 두고 백악관과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공화당에 내준 민주당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의 선거 전략가 마이크 두헤임은 미국 NBC 방송 인터뷰에서 "대참패였다"고 평가했다. 두헤임은 "주 단위 공화당원들에게 재앙 같은 밤이었고 전국 단위 공화당원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대승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내년 중간선거 선전의 길조로 단정하기에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단 뉴욕시, 버지니아주, 뉴저지주는 모두 민주당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연방 상·하원의 다수당이 바뀔 수 있는 내년 중간선거나 2028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차피 선전 가능성이 큰 곳에서 이겼다는 얘기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상태가 양호해

내년 중간선거 선전을 장담한다면 오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현지 언론은 이번 선거를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민심의 향배에 대한 시사점은 분명하다고 본다. NBC는 이번 민주당 승리의 동력이 유권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에 있다고 짚었다. 맘다니, 스펠버거, 셰릴 당선인은 경제적 의제, 민생경제의 문제를 선거운동 중심에 두고 공화당 후보들을 난타했다. 사회주의자 맘다니, 중도좌파 스펠버거, 셰릴 당선인은 정책 비전이 달랐지만, 민생경제를 간판 문제로 삼는 전략은 공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추종하는 공화당 후보들이 지역 단위에서도 실패를 답습할 것이라는 캠페인이 주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4~28일 실시된 NBC 여론조사에서 전국 유권자 63%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기대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민주당의 선거전략이 제시 퍼거슨은 "사람들이 트럼프 때문에 삶이 힘들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퍼거슨은 국가 차원의 거시경제가 아니라 서민의 일상과 밀접한 체감 경제를 선거 의제로 삼으면 승리한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도 민주당 승리에 한몫한 것으로 관측된다. 스펠버거, 셰릴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싫다는 이유로 투표장에

온 것으로 조사된 전체 유권자의 40%를 사실상 모두 데려갔다. 국가 상황에 불만이 있거나 분노한다는 이들은 전체 투표자의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펠버거, 셰릴 당선인은 각각 이들의 77%, 75%를 끌어 담아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비판에 힘을 얻은 것으로 관측됐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에서 민주당이 얻을 교훈으로 민생경제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물가안정, 생계비 절감, 고용안정 등 일상에 밀착한 경제여건 개선책을 제시하면 유권자에게 호소력을 지닌다는 말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의 후보 선택이 적절했다고 두 번째 교훈을 제시했다. 스펠버거 당선인은 중앙정보국(CIA) 요원, 셰릴 당선인은 해군 헬리콥터 조종사 출신으로 애국심을 입증한 까닭에 '미국을 혐오하는 민주당'이라는 공화당의 공세가 먹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대중이 엘리트를 싫어하는 격동의 시대에 선거 때 기득권 수호를 내세우면 필패라는 점도 교훈으로 들었다. 뉴욕 시민들이 시와 주의 법규에 제약받아 시행이 어려울 정도의 정책을 내세우는 맘다니를 선택한 원인이 그의 정책이 좋아서라기보다 기득권을 향한 개탄이 크다는 데 있다는 분석이다. jangje@yna.co.kr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성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해의의료시업팀장 김수남

# 셋다운 해제는 언제?...유동성 경색 우려에 한미 증시 발목

## 역대 최장 기록에 단기자금 수요증가·위험자산 투심 악화로 이어져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미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셋다운) 장기화가 유동성 경색 우려를 키우면서 미국은 물론, 한국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

6일 연합인포맥스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85% 내린 4,004.42로 거래를 마쳤다. 장 중 한때 6%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이날도 코스피는 비록 상승 출발했다가 보합권으로 내려가 4,000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증권가는 그간 인공지능(AI) 열풍에 뉴욕 증시에서 크게 올랐던 대형 기술주의 주가가 4일(이하 현지시간) 'AI 버블' 우려 재점화로 하락한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셋다운 장기화도 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미국에서는 의회가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정부 기능이 일시 중단되는 셋다운 사태가 전날까지 36일째 진행되고 있다. 역대 최장기간이다.

셋다운이 길어지면서 미국 재무부의 일반 계정(TGA) 잔고가 급증하자 시중 유동성 경색 우려가 커지고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달 들어 외국인 자금은 국내 증시에서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이달 들어 매일 순매도를 기록하며 전날까지 5조930억원 팔아치웠다. 6일 오전 현재도 매도 우위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030210] 연구원은 "셋다운 이전 대비 TGA 잔액은 2천억 달러 증가해 총 1조 달러에 도달했다"면서 "정부가 일부 지출과 공공 급여 지급을 중단하며 유출은 없는 반면 국채 발행, 세금, 관세 등 유입은 지속돼 왜곡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시중 유동성이 흡수돼 은행 준비금 감소 및 단기자금 시장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며 "셋다운 해소 시 반대로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 자산의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셋다운 해소 이슈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하향 안정, 환율 하향 안정 등이 확인될 필요 있겠으나, 외부 변수에 기인한 과도한 우려보다는 펀더멘털에 근거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박혜란 삼성증권[016360] 연구원은 "주식 시장은 그동안 미·중 무역 분쟁, 빅테크 실적 등 핵심 이벤트를 소화하기에 바빴다"며 "그 사이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은 더욱 부담스러워

졌고 실적은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고평가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큰 이벤트들이 지나니 금리 인하 기대 약화, 셋다운 장기화 등 가

려졌던 우려들이 시장을 동시에 누르고 있다"며 "당분간 시장이 상승하고자 하는 힘보다 과열을 해소하고자 하는 힘이 더 우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미 의회

### 당신과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기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소아우울증을 위한 도움이 내 곁에 | 🔍

정신건강 위기 관리 기관, 가까운 곳에서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

위기에 처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세요?

가까운 행동건강센터를 찾아보세요.

[mass.gov/CBHC](https://mass.gov/CBHC)



# 대법 "건설규제 완화 조례 적법"...종묘 앞 재개발 탄력받나

## 서울시의회 '보존지역 밖도 문화재 영향 검토' 조항 삭제 문체부 '국가유산청 협의 거쳐야' 무효소송 냈으나 패소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최근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온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목받았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모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조례 개정이 법령 위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근 서울시의 재정비 계획 변경으로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오는 서울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하는데,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정했다.

같은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

제한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조항은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는 게 서울시의회 결정의 배경이었다.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개정 조례가 공포되면서 소송 전으로 번졌다.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진행된다.

2년여의 소송전 끝에 대법원은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 상 위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지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화유산법상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내용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는 문재이므로,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협의를 거쳐거나 관련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돼 효력이 없는 조례를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 제·개정 권한의 행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령 위위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문체부 청구를 기각했다.

당초 소송 대상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되면서 구 조례 개정안 의결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도 쟁점이었다.

문체부는 '해당 조항이 빠진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 역시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는 주장(주장) 청구를 추가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가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는 해당 조항의 삭

제 상태는 현행 조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 사건 현행 조례의 재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원고가 현행 조례의 의결에 대해 참가인(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 현행 조례 그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예비적 청구는 각하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무부처 장관은 시·도 지방의회 의결에 법령 위반 등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만약 지자체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접 지방의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최근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온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목받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뼈대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로 변경됐다. 최고 높이 145m에 이르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됐으나 서울시 측은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약 180m 떨어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바깥이라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already@yna.co.kr



###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NOV. 7th - NOV. 13th, 2025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 PORK KIMCHI FRIED RICE

A meal that brings back nostalgic memories of home comfort. Make your day better with H Mart's go-to ingredients. 집밥의 향수를 불러오는 한 그릇, 삼겹살 김치 볶음밥. H Mart의 신선한 재료로 오늘을 더 맛있게 만들어보세요.



Green Seedless Grape 씨없는 청포도 LB <b>\$2.99</b>	Honey Mango 허니 망고 BOX <b>\$14.99</b>	Shanghai Tip 청경채 팀 LB <b>\$1.49</b>	Fuyu Persimmon 단감 LB <b>\$1.99</b> BOX <b>\$19.99</b>	Korean Shine Muscat Grape 한국산 샤인머스켓 포도 PRODUCT OF KOREA 1.32 LB/PKG <b>\$14.99</b>	Peeled Durian 깎 두리안 1.1 LB/PKG <b>\$24.99</b>	Stem Longan 스텝 롱간 LB <b>\$4.99</b>
Mangosteen 망고스틴 LB <b>\$8.99</b>	Green Onion 파 BUN FOR <b>\$1.99</b>	Blueberry 블루베리 1 PINT/PKG <b>\$3.99</b>	Yellow Dragon Fruit 노란 용과 LB <b>\$2.99</b>	Pomegranate 석류 BOX <b>\$24.99</b>	Lago Grape 라코 포도 6 LB/BOX <b>\$14.99</b>	Napa Cabbage 배추 BOX <b>\$9.99</b>

SPEND \$60 | LIMIT 2 BOX AND MORE

###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U.S.D.A. CHOICE</b>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b>\$9.99</b>	Fresh Bone-in Beef Shank 생 뼈있는 소 아롱사태 LB <b>\$6.99</b>
Fresh Pork Single Belly for BBQ 생 돼지 삼겹살 (바베큐용) SLICED/LB <b>\$6.99</b>	Fresh Pork CT Butt 생 돼지목살 (수육용) CHUNK/LB <b>\$6.99</b>
Fresh Chicken Wing 생 닭 날개 FAMILY PACK/LB <b>\$2.99</b>	Marinated Tenderized Beef Ribeye Steak 양념 별집 등심 스테이크 LB <b>\$8.99</b>

###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ozen Red Snapper 홍도미 LB <b>\$8.99</b>	Pre-frozen Cod Fillet 대구 전감 LB <b>\$7.99</b>
Headless White Shrimp 흰새우 16-20'S/LB <b>\$7.99</b>	Frozen Chilean Seabass Steak 칠리안 씨베스 스테이크 LB <b>\$23.99</b>
Frozen Octopus 문어 PRODUCT OF SPAIN LB <b>\$7.99</b>	Frozen Silver Pomfret 은병어 300-400'S/LB <b>\$9.99</b>

### SMART CARD MEMBER ONLY

OTOKI Cheesy Ramen 오뚜기 치즈라면 CHEDDAR <b>\$4.99</b> 3.91 OZ X 4 EA/PKG	OTOKI Cheesy Ramen 오뚜기 치즈라면 SPICY <b>\$4.99</b> 3.91 OZ X 4 EA/PKG
DAESANG Rosebud Coffee Mix 대상 로즈버드 커피믹스 MOCHA <b>\$10.99</b> 2.65 LB (100 STICKS/BOX)	DAESANG Rosebud Coffee Mix 대상 로즈버드 커피믹스 ORIGINAL <b>\$10.99</b> 2.65 LB (100 STICKS/BOX)

HALLA FOOD Tuna Sauce 한라식품 참치액 30.5 FL OZ <b>\$10.99</b>	CHUNG JUNGONE O'Food Brown Rice Red Pepper Paste 청정원 오푸드 순창 100% 현미 태양초 찰 고추장 6.6 LB <b>\$14.99</b>	KEWPIE Deep-Roasted Sesame Dressing 큐피 참깨 드레싱 8 FL OZ <b>\$3.99</b>	HAETAE Cooked Loach Stew 해태 추어탕 17.64 OZ <b>\$4.99</b>	HAETAE Spicy Seafood & Fish Roe Soup 해태 해물알탕 19.4 OZ <b>\$4.99</b>
OSAKI BRAND Fish Cake 오사끼 게맛살 1.1 LB <b>\$5.99</b>	YOODONG Canned Bai-top Shell (Whelk) 우동 자연산 골뱅이 캔 14.1 OZ <b>\$7.99</b>	ORION Turtle Chips 오리온 꼬북칩 CORN SOUP 5.6 OZ <b>\$2.99</b>	ORION Turtle Chips 오리온 꼬북칩 CHOCO CHURROS 5.6 OZ <b>\$2.99</b>	CROWN Choco Pie Value Pack 크라운 초코파이 밸류 팩 25.4 OZ (12 EA X 2 PKG/BOX) <b>\$4.99</b>
CROWN Rice Seulbyeung Cracker 크라운 참살 설병 9.52 OZ <b>\$4.99</b>	DANYA Mochi Ice Cream Fruit Medley 단야 모찌모찌 종합 과일맛 아이스크림 2 FL OZ X 6 EA/PKG <b>\$3.99</b>	LILFANT Max Bear Children's Training Chopsticks 릴팡 맥스 베어 어린이 연습 젓가락 YELLOW BEAR/BROWN BEAR EA <b>\$4.99</b>	GLASSLOCK Food Container Set 글라스락 유리 밀폐용기 3종 세트 RECTANGLE (13.5/33.1/66.2 FL OZ) / SQUARE (16.2/39.9/82.8 FL OZ) SET <b>\$12.99</b>	AT'G9 Laundry Liquid Pods AT'G9 초고농축 퍼퓸 캡슐 세탁세제 PINK/LAVENDER 32 CAPSULES/PKG <b>\$6.99</b>

### Taste the tradition of Bibigo Kimchi at H Mart

H Mart에서 비비고 김치를 맛보세요.

###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b>이사 이제봉</b> DIRECTOR 781.654.5281 jeklee@bostonpremierrealty.com	 <b>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b>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b>매니저 캐시 송</b>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ellysong@bostonpremierrealty.com	 <b>매니저 크리스틴 손</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k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b>매니저 신보경</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ahn@bostonpremierrealty.com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c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b>김지현</b> 978.494.2043 jim@bostonpremierrealty.com	 <b>노미연</b> 617.447.0501 nohmiyeon@bostonpremierrealty.com	 <b>박주</b> 617.780.7639 tjpark@bostonpremierrealty.com	 <b>장지연</b> 978.866.3248 tjjang@bostonpremierrealty.com	 <b>이인주</b> 401.538.3397 tyyee@bostonpremierrealty.com
 <b>박소연</b> 617.338.0787 soyeon@bostonpremierrealty.com	 <b>그레이스 리</b> 617.455.7710 grace.lee@bostonpremierrealty.com	 <b>한수연</b> 617.528.6973 hansoyeon@bostonpremierrealty.com	 <b>민소연</b> 213.503.0347 minsoyeon@bostonpremierrealty.com	 <b>박지연</b> 413.507.1400 tjpark@bostonpremierrealty.com	 <b>손정태</b> 617.913.3348 sohn@bostonpremierrealty.com
 <b>최진길</b> 617.877.0387 jin@bostonpremierrealty.com	 <b>이정순</b> 781.836.3412 soonyee@bostonpremierrealty.com	 <b>한혜숙</b> 781.959.1214 han@bostonpremierrealty.com	 <b>장혜정</b> 617.915.1162 tjjang@bostonpremierrealty.com	 <b>이준규</b> 617.543.0728 tjyee@bostonpremierrealty.com	 <b>박지연</b> 404.641.9102 sohn@bostonpremierrealty.com
 <b>Tammy Woolfolk</b> 917.294.58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b>Nancy Wang</b> 617.230.8482 nancywang@bostonpremierrealty.com	 <b>Shirley Zhao</b> 857.531.0314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b>Vivian Ye</b> 617.936.2713 vivianye@bostonpremierrealty.com	 <b>Xian Dole</b> 413.527.8979 xian@bostonpremierrealty.com	 <b>Lu Jiong</b> 248.449.0117 jiong@bostonpremierrealty.com
 <b>John Tran</b>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b>Rebecca Phu</b> 617.833.188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b>Michael Sorra</b> 978.873.0076 msorra@bostonpremierrealty.com	 <b>Linda Tu</b>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b>Jun Wang</b> 646.278.26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b>Lily Wang</b> 617.936.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b>Crystal Wei</b>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b>정혜연 박</b> 201.446.8995 hyeyee@bostonpremierrealty.com	 <b>재미크 김</b> 781.506.0409 dick@bostonpremierrealty.com	 <b>이신현</b> 857.260.0434 shin@bostonpremierrealty.com	 <b>Mini Belanger</b> 413.257.1586 mini@bostonpremierrealty.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 김경협 동포청장 "복수국적 연령하향 · 재외국민투표 개선 적극추진"

**취임 50일 인터뷰... "재외동포 관리 · 규제 대상 아닌 협력 동반자"**  
**"조직 · 예산 아직 반쪽... 3선 의원 경험 살려 부처 · 국회 협력 이끌 것"**  
**"역할 분담할 민간 지원기구 필요"... 영사 파견 · 귀환 동포 지원 적극 추진**



국민권정부 출범 후 재외동포청을 처음으로 이끌게 된 3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경협 청장. (동포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700만 재외동포는 우리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며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행정 편의의 시각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동포 정책을 펼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국민권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재외동포청을 이끌게 된 김경협(63) 청장은 취임 50일 맞아 인천 송도 본청에서 열린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직과 예산이 아직 반쪽짜리지만 3선 국회의원 경험을 살려 정부 부처와의 업무 조율과 국회 협력을 끌어내 동포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데 힘쓰겠다"고 6일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최초로 동포 업무를 맡았었고, 국회에서는 지난 2017년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 기본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또 고려인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힘쓰기도 했던 그는 "동포사회의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를 알고 있던 차에 청장을 맡게 돼 운명이다 싶으면서도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 청장은 출범 3년 차에 접어든 재외동포청은 아직 신생 조직으로서 갈 길이 멀다며 구조적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충분한 준비를 거치지 못하고 급조하듯이 동포

청이 출범하면서 불안정하고 영성난 조직 체계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며 "더욱이 예산도 과거 재외동포재단 시절과 별 차이가 없다 보니 동포사회에서 피부로 느끼는 혜택에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8년 전 동포청 설치 법안 발의할 때도 여러 부처에 산재한 재외동포 업무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직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상황"이라며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다음은 김 청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달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고 재외국민 투표 제도 개선을 위해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동포청의 대응은?

▲ 동포청에서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지금의 65세에서 40세로 낮출시 2044년에는 생산 유발 효과 6조2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허용 연령을 낮출수록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건이나 발의될 정도로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동포청은 연령 하향 시 효과와 사회복지 및 병역 문제 등 유관 제도와 연계한 개선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글로벌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동포사회의 지원은 큰 도움이 된다. 연령 하향은 동포사회가 모국을 자유롭게 오가며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동포청은 정책 효과 및 동포의 모국 기여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 공감대 형성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공관투표를 위해 많게는 수백~수천km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일은 벌써 이뤄졌어야 할 일이다. 다만 우편투표나 인터넷 투표 등 재외선거의 제도개선은 법령 개정이 우선돼야 할 사항이다. 재외선거 투표권자들의 요망사항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선관위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 동포청이 동포재단 때와 비교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 동포청 직원 개인의 자세나 역량 부족이라기보다는 구조적 문제라고 본다. 동포청이 정부 중앙부처이다 보니 조직과 예산의 경직성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동포사회에서 까다로워진 행정으로 전보다 지원받기 힘들어졌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예전에 동포청 설치 법안을 발의할 때도 민간 지원기구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다양한 유대인재단이 있어서 정부와 이런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이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기본법' 만들 때 법안에 명시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결여된 것이 아쉽다. 현재 상황에 맞춰 동포 지원체계와 업무 체계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민간 지원기구로 세계한인재단(가칭) 설립도 추진해볼 계획이다.

-- 과거 동포재단 시절 재외공관에 동포 업무 담당 영사를 파견했던 제도를 복원 · 확대할 계획이런데?

▲ 모든 정책은 현장에 답이 있으므로 정책 담당자인 직원이 동포사회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맞춤형 동포지원'과 '동포역량 극대화'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23번의 추진을 위해서라도 과거 동포재단 시절 영사를 파견했던 미국(LA·뉴욕), 중국(베이징), 일본(도쿄), 베트남(호찌민), 호주(시드니), 카자흐스탄(알마티)뿐만 아니라 동포들의 수요가 높은 곳에 파견을 확대해 나가겠다.

또 동포청 특수성을 감안해 정책 현장 방문 교육 프로그램이나 자체국의 훈련 등 다양한 제도를 검토해 현장 역량을 강화하겠다.

-- 국내 귀환 동포가 8만명으로 늘었고 곧 100만명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정착을 돕는 전담 조직을 개설할 계획이런데?

▲ 일시 체류보다 모국에 정착하려는 동포들이 늘고 있어서 체류자격 외에도 취업, 주거 확보, 자녀 교육 등 새로운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무는 체류 · 고용 · 복지 등 분야별로 부처에 산재해있고, 외국인의 국내 체류 관점에서 시행해왔기에 귀환 동포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다.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귀환 동포를 지원할 책무가 있다. 당면 과제인 저출산 · 고령화 ·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혈통 · 언어 · 문화를 공유하는 재외동포의 귀환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동포청은 귀환 동포를 관리와 규제 대상으로 보지 않기에 이들의 역사적 ·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 각기 사정에 맞추어 정착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

이를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부내 국내 동포 정책 총괄 · 조정, 맞춤형 지원, 제도 개선, 대국민 인식개선 등에 앞장서겠다.

-- 동포청 출범 3년 차에 접어들

었는데 여전히 동포 업무가 각 부처에 산재해 있다. 창구 일원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 '재외동포기본법'의 취지 중 하나가 부처에 산재한 동포 업무를 동포청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유사 업무가 부처에 산재해 있다 보니 중복으로 인한 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업무 통합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조율해 동포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던 사할린 동포 지원 업무를 이관받아 더 내실 있게 하게 됐다.

-- 동포청 예산이 재단 시절에 비해 크게 늘지 않다 보니 동포사회가 피부로 느끼는 혜택에 차이는 없다는 불만소리도 나온다.

▲ 2024년 1천67억원에서 올해는 1천71억원으로 3억원 늘었다. 내년 예산안도 1천92억원으로 거의 제자리 수준이다. 600억~700억원이던 동포재단 시절보다 예산이 는 것 같지만 직원도 2배 이상 늘어났기에 예산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필수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다양한 정부 부처와 민간 등의 인적자원이 합류한 동포청은 출신 배경이 다양하다 보니 팀워크 발휘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 축구에서 골을 넣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어시스트다. 팀워크가 제대로 발휘될 때 훌륭한 어시스트가 나온다. 난 공무원 출신이 아니기에 구성원 누가 어디 출신인지 모른다. 출신에 따른 차별은 절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출신에 따른 장점을 잘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 팀워크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부서 내에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을 고루 배치하겠다.

-- 1970~1990년대와 달리 대한민국 국력이 상승했고, 동포사회도 거주국에서 위상이 높아졌다. 달라진 상황에 맞게 동포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 대한민국은 지난해 잠시 위기가 있었지만 이를 잘 극복해 모범적인 민주국가이자 문화 강국으로 돌아왔다. 이는 동포분들이 해외에서 모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잘되도록 다양한 공공외교를 펼쳐며 응원해준 덕분이다.

재외동포는 글로벌 통상국가의 기반이자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넓혀온 개척자이기도 하다.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NOV. 6<sup>TH</sup> - NOV. 13<sup>TH</sup>, 2025**



**MADE IN KOREA**



**Microwave Safe Food Container Set**  
**글라스락 핫밥용기+계란찜기**



**ROUND - RICE CONTAINER**  
 (300 mL X 6 EA) + EGG STEAMER  
 (500 mL X 1 EA)/SET/**LIMIT 2**

**SQUARE - RICE CONTAINER**  
 (440 mL X 6 EA) + EGG STEAMER  
 (500 mL X 1 EA)/SET/**LIMIT 2**

~~REG. \$34.99~~

~~REG. \$37.99~~

**\$19.99**

**\$21.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 '조각도시' 지창욱 "조작된 도시" 권유와는 완전히 다른 연기

(서울=연합뉴스) 고가혜 기자 = "영화 '조작된 도시'에서 제가 맡았던 권유라는 인물과 이번 시리즈의 박태중을 아예 연결 짓지 않고 연기를 하려고 했어요. 영화와는 또 다른 캐릭터가 나왔다고 볼 수 있죠."

2017년 개봉한 영화 '조작된 도시'에 이어 이 작품을 각색한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조각도시'에서도 주인공을 맡게 된 배우 지창욱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이처럼 두 배역이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각도시'는 평범하게 살다 억울하게 흉악범죄에 휘말려 감옥에 가게 된 박태중(지창욱 분)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안요한(도경수)을 향해 복수를 실행하는 과정을 그린 액션물이다.

이 작품은 SBS 드라마 '모범택시' 시리즈, 영화 '범죄도시4' 등으로 유명한 오상호 작가가 앞서 각본을 쓴 영화 '조작된 도시'를 시리즈로 각색한 것이다. '조각도시'의 극본 역시 오 작가가 맡았다.

평범한 주인공이 악인의 설계로 억울하게 범죄 누명을 쓰게 된다는 시리즈 설정 자체는 영화와 동일하지만, 그 외 등장인물과 사건들은 모두 새로워졌다.

지창욱은 '권유'라는 영화 주인공과 시리즈의 '태중'을 완전히 다른 인물로 표현하려고 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시리즈에서는) 주변 인물들이 (영화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물로 설정됐는데, 모든 인물이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 있었다"며 "이번에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하고 연

기했다"고 했다.

지창욱은 촬영을 앞두고 오 작가의 특별 주문을 받은 뒤 큰 고민에 빠졌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캐릭터를 설정할 때 '태중이는 나무 같았으면 좋겠다'는 작가님의 한마디 때문에 애를 많이 썼다"며 "촬영 내내 그 말씀이 가장 큰 숙제였고, 끝까지 쉽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태중과 대립하는 요한 역을 맡은 도경수는 이번 작품에서 빌런(악당) 연기에 처음 도전했다.

도경수는 "어떻게 하면 요한이 더 섬뜩해 보일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머리나 의상도 고민을 많이 하고, (연기할 땐) 영화나 다큐멘터리들을 보며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상상하려고 했다"고 했다.

이 작품에서 요한의 중요 고객이자 또 다른 악역인 백도경 역할을 맡은 이광수는 평소 절친한 도경수의 새로운 모습을 촬영 현장에서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광수는 "촬영 전엔 워낙 친한 사이라 속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현장에서 도경수를 처음 만나자마자 '아이 친구가 도경수였지'라는 생각을 했다"며 "현장에서 프로페셔널하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연출을 맡은 박신우 감독은 시리즈물 '조각도시'가 각 에피소드에서 신선함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영화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감독은 "이번 작품은 '시리즈'라는 매체의 매력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며 "매번 새로운 스테이지가 펼쳐지는데, 뒤로



넘어갈수록 (다음 편을) 보지 않을 수 없게끔 새로운 전개를 보여주려고 신경 썼다"고 밝혔다.

총 12부작으로 제작된 '조각도시'는 5일 4개 에피소드를 먼저 선보인 뒤 매주 2편씩 공개할 예정이다.

# 카리스마 뽐낸 아이브에 2만8천 팬 탄생...두번째 월드투어 포문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우리 내일 없잖아. 오늘 목 아끼면 혼난다!"(리즈)

그룹 아이브 멤버들이 노래 '에티튜드'(ATTITUDE) 반주에 맞춰 당당한 포즈를 취하자 관객들은 기다렸다는 듯 함성을 내지르기 시작했다..

이어 멤버들이 런웨이에 선 모델처럼 도도한 표정으로 걸음을 옮기자, 카리스마에 압도된 관객들은 '미쳤다'라는 탄성을 내뿜으며 순식간에 무대에 몰입했다.

아이브는 2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두 번째 월드투어 '쇼 왓 아이 엠'(SHOW WHAT I AM)에서 자신감 넘치는 무대로 월드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아이브가 월드투어에 나서는 것은 2023년 첫 월드투어 이후 약

2년 만이다. 지난 달 31일부터 사흘간 열린 공연에는 총 2만8천여 명의 관객이 함께했다.

'있는 그대로의 아이브를 보여주겠다'는 뜻의 제목을 내세운 아이브는 공연 시작부터 빠른 박자의 곡을 연달아 들려주며 강렬한 시작을 알렸다.

멤버들은 최신 앨범 '아이브 시크릿'(IVE SECRET) 수록곡 '갓차'(GOTCHA)와 타이틀곡 '엑스오엑스지'(XOXO)에 이어 '배디'(Baddie), '아센디오'(Accendio)로 무대를 이어가며 기세를 끌어올렸다.

특히 라이브 밴드 세션의 리듬감 있는 베이스와 드럼 연주는 랩 파트의 속도감을 한층 돋보이게 했다. '티케이오'(TKO)에서는 멤버들이 바닥을 내려치는 안무에 드럼 연주가 곁들여지며 박력을

더했다.

레이는 "풍성한 밴드 사운드와 함께 다이브(아이브 팬덤)가 좋아하는 것들로 공연을 짝짝 채웠다"고 무대를 소개했다. 장원영도 "밴드의 연주 덕분에 공연이 다채로워졌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멤버들이 각자의 미발매 솔로곡을 선보이며 개성을 뽐냈다.

장원영은 '8'에서 여유로운 웨이브가 돋보이는 안무와 랩을 들려주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공연 초반부 강렬한 시선 처리로 객석을 사로잡은 레이는 솔로곡 '인 유어 하트'(In Your Heart)에서 뿔망치와 안경 등의 소품으로 상반된 매력을 선보였다.

안유진은 '포스'(Force)에서 힙합 비트에 맞춰 절도 있는 안무로 무대를 시작한 뒤 폭발적인 고음



을 들려주며 개인 무대의 방점을 찍었다.

안유진은 "내 매력에 이끌리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곡"이라며 "

노래도 보여드리고 싶고, 춤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탄생한 노래"라고 설명했다.

cjs@yna.co.kr

# ▶▶ Meet Me at

# the MFA ▶ Fall Events

▶ Art ▶ Exhibitions ▶ Events ▶ Community ▶ Art ▶ Exhibitions ▶

**Exhibition**

**Of Light and Air:  
Winslow Homer  
in Watercolor**

▶ Through 1/19



**Program**

**Boston Family Days**

- ▶ Sunday 11/9
- ▶ Free for Boston students and their families

**Special Event**

**\$5 Third Thursday**

- ▶ Thursday 11/20
- ▶ \$5 admission after 5 pm



**MFABoston** ▶ **Museum of Fine Arts, Boston**  
465 Huntington Avenue, Boston, MA 02115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30) 주식시장 거품(Bubble)

최근 주식시장은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꾸준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강세장이 이어지자, 시장 버블에 대한 경고도 함께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앤드루 로스 소킨(Andrew Ross Sorkin)은 새 저서 『1929: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큰 폭락의 내부』에서 “지금의 시장은 1920년대의 광란(Roaring Twenties)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경고한다.

그가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주가가 높다는 사실이 아니다. 경제의 펀더멘털은 둔화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장에는 투기적 자금과 과도한 부채가 섞여 있고, 투자자를 지켜줄 ‘안전장치(Guardrails)’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킨은 “폭락(Crash)은 올 것이다. 다만, 언제일지, 얼마나 깊을지는 말씀드릴 수 없

다”라고 말한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책임을 피하는 전형적인 ‘양방향 예측(Two-way Prediction)’이다.

“폭락이 온다”는 말로 경고의 권위를 세우고,

“언제, 얼마나 깊을지는 모른다”는 말로 예측 실패의 책임을 회한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CEO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BBC 인터뷰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걱정이 많다. 시장 조정은 6개월 뒤일 수도, 2년 뒤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온다”라고 말했다.

그는 AI 중심의 기술주 랠리에 대해서도 신중했다. “AI는 분명 의미 있는 기술이지만, 모든 투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손실로 끝날 것이다.” 흥미롭게도 그는 2022년에도 “경제에 허리케인이 몰려온다”고 경고했지만, 이후 주식시장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 2025년에도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가

고 있다.

헤지펀드 매니저 폴 튜더 존스(Paul Tudor Jones) 역시 CNBC 인터뷰에서 “지금은 마치 ‘최종 폭발(Blow-off)’ 직전 같다.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고, 1999년보다 더 극적인 상황이 다시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멜트업(Melt-up)’은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주가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현상이다. 문제는 이런 상승이 기업 실적이나 경제의 기초 체력(Fundamentals)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멜트업은 시장 거품(Market Bubble)의 전조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자신이 옳았다고 말할 수 있는 예측을 내놓는다.

- 멜트업이 오면: “내가 과열을 예측했잖아.”
- 폭락이 오면: “내가 폭락을 경고했잖아.”

이런 식의 예측은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말장난일 뿐이다. 투

자는 이런 예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2022년에는 경기 침체가 100% 올 것이라고 모두가 확신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때처럼 인공지능(AI) 거품을 말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오르내림을 반복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정(Correction)은 오래가지 않았다.

1928년 이후 발생한 여러 번의 약세장(Bear Market) 중 다수는 1년 이내에 끝났다. 역사적으로 S&P 500 지수의 평균 약세장 기간은 약 10개월, 반면 평균 강세장(Bull Market)은 3년 이상(1,000일 이상) 지속됐다. 결국 현명한 투자자는 시장의 단기 변동보다 긴 호흡의 복리 성장을 신뢰한다.

두려움 대신 냉정함으로, 낙관 대신 균형감으로 접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길이다. 시장은 언제나 오르락내리락하지만,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만이 버블을 넘어 진짜 부(富)를 쌓는다.’

#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배움과 가르침에 헌신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반세기의 마음  
HALF A CENTURY OF HEARTS DEDICATED TO LEARNING AND TEACHING



# 개교 50주년

지난 반세기 동안 2세들을 위한 한글과 한국 문화, 역사, 그리고 올곧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어주는 탄탄한 다리로서, 헌신적인 교사와 든든한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한결같은 지원속에서 성장해 온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개교 50 주년을 맞이하며, '마음으로 가르치고', '호기심으로 배우며, 기쁨으로 놀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반 세기의 여정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주보스턴총영사관과 재외동포청을 비롯하여 뉴잉글랜드 지역 여러 한인단체의 지속적인 격려와 후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잘 배우고 가르치며 서로 돌보는 모범적인 공동체"로서 다음 50년의 역사를 향해 새롭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 11. 22.

특별히,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모든 교사, 학부모,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KOREAN SCHOOL OF NEW ENGLAND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 서블릿 사기(Sublease Scam)

내가 부동산 칼럼을 쓴지가 보스턴코리아가 생기기도 전인 한인회보 때부터였으니 몇 년인지 모르겠다.

지난주에 어느 독자가 내 칼럼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매번 읽고 있다고 하시면서 요즘 너무 많은 렌트사기에 대해서 써 달라고 이메일을 보내 주셨다.

일단 이메일 내용부터 공유한다. 보스턴코리아에 내시는 칼럼 잘 읽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셔서 항상 챙겨 읽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스턴 코리아에는 렌트 찾는 분이 많은데, 요즘 서블릿 관련 사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벌써 올해만 세명이 서블릿 사기를 당한 후 제게 연락이 왔어요.

칼럼 주제 중 서블릿과 정식계약의 차이점에 대해 글을 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 둘의 차이점을 전혀 모른 채 계약서에 뭐라고 써있던, 타운 또는 HOA의 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서블릿을 하는 것 같습니다.

렌트 찾는 분들의 사기 위험과 서블릿터가 아무런 권리나 의무 없이 잠깐 사는 것도 문제

지만, 또 집주인 입장에서 서블릿 들어온 분이 집에 문제를 일으켜 저같은 경우 작년에 밀충으로 물이 다 새고 화장실이 망가지 만불의 비용이 들었고, 그야말로 서블릿 한 분은 저도 모르게 계약도 없이 있는 분이고 정식 계약자도 사정이 딱해서 그냥 제가다 부담했습니다.

중계인을 통한 계약, 집주인 또는 아파트 관리 사무실(Leasing Office)과의 직접계약이 모두의 책임과 권리를 주는 큰 부분이라고요. 칼럼 쓰실 때 주제로 한번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서블릿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다. 서블릿(Sublease)란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때 남은 기간동안 들어올 다른 세입자를 본인이 직접 찾았을 때 서블릿이라고 한다. 단어 그대로 대신할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 경우 서블릿을 하시는 분은 일단 100% 현재 세입자를 직접 대면으로 만나서 계약해야 한다. 계약시에는 현재 세입자의 ID 확인 후 원래 렌트 계약서에 Sublease 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렌트

계약서는 현재 세입자가 사인한 문서여야 한다.

아파트 렌트 계약에 따라서 서블릿(Sublease)가 허용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데도 있다. 따라서 꼭 집주인(Landlord)과 한번 꼭 통화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요즘에 렌트사기의 특징은 현재 시세보다 싸게 내 놓고 본인이 주인인 것처럼 해서 행세하며, 계약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서 보증금(Deposit)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세상이 바뀌면서 페이스북(Facebook Market Place) 등 사기성 광고를 올릴 수 있는 사이트가 너무 많다. 꼭 중계인을 통해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꼭 가서 집을 확인해봐야 한다.

혹시 한국이나 타주에 있어서 이게 허락이 안될 경우에는 중계인에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 독자가 말씀하신 서블릿과 정식 계약에 다른 점은 바로 이것이다. 정식 계약은 집주인과 직접하는 것이고 서블릿은 현재 세입자가 본인이 채우지 못하는 기간을 대신 계약하는 것이다.

한가지 더 대부분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특히 학생들은 크레딧 스코어나 인컴이 없어서

서블릿을 찾는 경우를 많이 본다. 내가 말한 위에 부분을 다 확인후 결정하시기 바란다.

다음 칼럼에는 그동안 있었던 사기사례(scam cases)를 구체적으로 써 보겠다. 문의해 주신 독자분에게 감사를 표한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11월 9일 - 11월 15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div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border-radius: 10px; margin-bottom: 10px;"> </div> <p><b>쥐띠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b></p> <p>● 운수: 불투명하고 막연한 일에 시간을 소모하기 쉬우니 철저한 시간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 금전: 선불리 남의 일에 나서서는 안될 것입니다. 남의 사정을 봐주다가는 도리어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 애정: 현실이 어려울수록 믿고 의지할 사람은 역시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족의 소중함도 느끼게 되겠습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1, 15일 길일. 9, 12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border-radius: 10px; margin-bottom: 10px;"> </div> <p><b>소띠   마음의 변화가</b></p> <p>● 운수: 모든 면에서 의욕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낙담하고 어딘가에 의존하고 싶어지는 때입니다. ● 금전: 여가 지출할 일이 생기니 답답합니다. 머리 속에 금전에 대한 고민이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애정: 자신의 마음의 변화도 심하고 상대도 확실한 마음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니 좀더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2, 15일 길일. 10, 13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border-radius: 10px; margin-bottom: 10px;"> </div> <p><b>범띠   사랑의 전주곡이 시작되고</b></p> <p>● 운수: 대인관계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기 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상대를 내편으로 만들 수 있고 승산도 있습니다. ● 금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금전운세가 호전되고 황제도 가능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운세입니다. ● 애정: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엮어갈 사랑의 전주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9, 13일 길일. 11, 14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border-radius: 10px; margin-bottom: 10px;"> </div> <p><b>토끼띠   신용을 쌓도록</b></p> <p>● 운수: 자신이 처해있는 위치를 잘 판단해서 예의주시해 보고 일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손해가 되는지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다가는 큰 손해를 보는 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 애정: 가까운 사이일수록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일단 말을 한 것은 꼭 지켜서 신용을 쌓아야 합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0, 13일 길일. 12, 15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border-radius: 10px; margin-bottom: 10px;"> </div> <p><b>용띠   판단은 빠르게 하고</b></p> <p>● 운수: 작은 일이 큰 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때입니다. 판단은 빠르게 하고 말은 한번 생각한 뒤에 천천히 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가족을 위한 지출이 많아집니다. 다소 긴축재정을 하는 것이 훗날을 위해서 좋을 것입니다. ● 애정: 진정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도록 하세요. 사랑의 표현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1, 15일 길일. 10, 13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border-radius: 10px; margin-bottom: 10px;"> </div> <p><b>뱀띠   자금 회전이 잘 되고</b></p> <p>● 운수: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과연 정보를 얼마나 충실히 수집했는가 하는 점을 먼저 꼼꼼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금전: 금전운은 양호한 편으로 자금 회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 애정: 가장 바람직하고 보기에도 좋은 것이 나이에 맞게 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남에게 어색하고 이상하게 보게 됩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9, 12일 길일. 11, 14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border-radius: 10px; margin-bottom: 10px;"> </div> <p><b>말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b></p> <p>● 운수: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 다기도 하고, 말이 씨가 된다고도 합니다.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 금전: 자신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지출이 많아집니다. ● 애정: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각오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뜻밖의 만남이 기대됩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0, 13일 길일. 12, 15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border-radius: 10px; margin-bottom: 10px;"> </div> <p><b>양띠   해결점을 찾도록</b></p> <p>● 운수: 피로가 쌓이기 쉬운 시기입니다.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그로 인해 소화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으니 건강을 잘 챙겨야 합니다. ● 금전: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손해를 보게 되니 상대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 애정: 권태기가 오면서 그냥 방치하면 서로의 대한 불만이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화로써 해결점을 찾도록 하세요. 03, 91, 79, 67, 55, 43년생은 9, 14일 길일. 13, 15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border-radius: 10px; margin-bottom: 10px;"> </div> <p><b>원숭이띠   유리한 방향으로</b></p> <p>● 운수: 더디게 풀려가는 것 같아도 점차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 금전: 순리적으로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그 열게 해어만 이익도 생기게 되고 금전적인 안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애정: 이제는 스스로 마음의 짐을 벗어 던져야 할 때입니다. 쉽게 용서할 수가 없더라도 불편한 감정을 풀고 살면 자신의 삶만 힘들어질 뿐입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13, 15일 길일. 10, 14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border-radius: 10px; margin-bottom: 10px;"> </div> <p><b>닭띠   상대와 보조를 맞추며</b></p> <p>● 운수: 과감하게 도전하면 도리어 피로가 겹치고 손해가 따를 수 있으니 상대와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신중하게 검토하여 일처리를 해 나간다면 큰 손해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 애정: 가장 가까운 사람이 타인으로 느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애정에 대한 결핍을 실감하게 되는군요. 93, 81, 69, 57, 45, 33년생은 11, 12일 길일. 13, 15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border-radius: 10px; margin-bottom: 10px;"> </div> <p><b>개띠   시간이 지나면</b></p> <p>● 운수: 뜻하지 않은 구설수로 난처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니 처신을 잘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 금전: 재물이 따라주기는 하나 돈 모으기가 힘들군요. 금전문제가 부부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애정: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라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빨리 정리하고 마음을 잡도록 하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9, 11일 길일. 10, 14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border-radius: 10px; margin-bottom: 10px;"> </div> <p><b>돼지띠   발전이 예상되는</b></p> <p>● 운수: 음지가 양지가 되는 때입니다. 모든 면에서 회복되는 기운을 받아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됩니다. ● 금전: 발전이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과감하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이익이 따를 것입니다. ● 애정: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때가 왔습니다. 구태여 감정을 표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상대에게 자신의 속마음이 잘 전해질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0, 15일 길일. 11, 14일 주의.</p>



## 8개국 맞붙는 '피지컬:아시아'...파키아오 "한국팀 체력 강해"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에서 힘이라면 밀리지 않는 이들이 모여 국가 대항전을 펼친다.

각자 언어는 달라도, 가장 직관적인 소통 방식인 '몸의 대화'를 통해 서로 부대끼고 승리를 향해 경쟁한다.

'피지컬: 아시아'는 기존의 '피지컬: 100' 시리즈를 개인전에서 국가대항전 형식으로 확장한 예능 프로그램이다. 한국, 일본, 태국, 몽골,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호주, 필리핀 등 8개국이 참가했다.

글로벌 선수들이 참여한 예능 프로그램인 만큼 두바이에 머물고 있는 전 UFC 선수 김동현을 비롯해 8개국 대표들이 화상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피지컬: 아시아'는 필리핀 복싱 전설로 꼽히는 매니 파키아오의 출연으로 공개 전

부터 화제를 모았다.

파키아오는 "오래전부터 '피지컬' 시리즈를 보고 있었고, 관심도 있었다"며 "이번에 '피지컬: 아시아'에 참여해보니 한국팀이 너무나 체력이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 저도 제 체력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장호기 PD도 "파키아오 선수에게 오랜 기간 연락했고, 집에 초대받아서 밥을 같이 먹으며 '피지컬: 100'을 소개했다. 바로 승낙 해주셨다"고 섭외 과정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종격투기(UFC) 미들급 챔피언 출신 로버트 휘터커, UFC 아시아인 최다승 선수 오카미 유신, 몽골 씨름 선수 어르헝바야르 바야르사이항, 튀르키예 오일 레슬링 챔피언 레쩨프 카라 등이 참여했다.

레쩨프 카라는 한국어로 "우리가 남이가"라고 말하며 "역사적으로 튀르키예와 한국은 형제의 나라이고, 제 조부의 형제도 한국전

쟁 당시 파병을 왔다"고 유대관계를 강조했다.

호주, 튀르키예 등이 아시아 국가 대항전에 참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팀이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장 PD는 "시즌1부터 성별과 인종, 나이로 구분하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어 경쟁하는 것을 내세웠다"며 "아시아 사람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아시아 방향으로 확장해 다양한 사람들이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고 설명했다.

'피지컬: 아시아' 이전 시즌 1·2보다 스케일을 더 키웠다.

우승 상금으로 10억원을 내걸었고, 동양적인 분위기의 거대한 성모양 세트장을 짓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선수인 이겟스 엑셔큐셔너는

"가장 놀란 것은 참가자들의 열정, 경쟁심 그리고 문화 가치가 녹아있는 경기장 분위기였다"고 떠올렸다.

김동현도 "이전 시즌 스케일을 알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도 놀랐다. 마치 과거 그 시대에서 싸우러 온 사람같이 되더라"며 "복싱 전설과 UFC 챔피언도 여기서 목숨을 걸고 다 쏟아부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말 대단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장 PD는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담으려고 1년 넘게 준비했다"며 "1988년 서울 올림픽 오마주(존경의 표시로 장면이나 대사를 인용하는 것)로 개막식에 나왔던 큰 북을 썼고, 산이나 배 등 서사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도 있다"고 귀띔했다.

heeva@yna.co.kr

## 코믹하게 돌아온 이정재 · 임지연... '알미운 사랑' 5%대로 시작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배우 이정재, 임지연이 힘을 빼고 웃음을 더해 만든 드라마 '알미운 사랑'이 5%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첫회는 과거 배우였지만, 열애설 때문에 은퇴하다시피 하고 매니저와 인쇄소를 운영하며 지내는 임현준(이정재 분)의 모습으로 시작했다.

임현준은 졸업작품 영화로 '착한형사 강필구'를 만들려는 박병기(전성우) 감독의 부탁에 못 이겨 주연으로 출연하게 되고, 이 작품이 이른바 대박을 터트리면서 국민 배우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열혈 기자 위정신(임지연)과의 묘한 인연도 계속 반복된다.

비리 국회의원의 뒤를 캐던 위정신은 임현준이 인쇄소 직원일 때 우연히 마주쳤으며, 그다음에는 술집 화장실에서 비리 증거 영상을 확보한 정신을 본

의 아니게 도와주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치부에서 연예부로의 발령을 향하는 위정신이 레드카펫에 난입하자 임현준이 몸을 날렸다가 망신을 당하는 것으로 1화가 마무리됐다.

빠른 호흡에 코믹한 연출과 연기를 더해 유쾌한 맛을 잘 살렸다.

졸업작품 뒤풀이에서 박 감독에게 "우리는 다시는 만나지 말자"며 울분을 터뜨리던 현준과 시상식에서 감동에 젖어 눈물을 터뜨리는 현준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장면이 재미를 준다.

최근 '오징어 게임' 2·3에서 묵직한 캐릭터로 깊은 인상을 남긴 이정재, '더 글로리', '마당이 있는 집'에서 독한 얼굴을 보여준 임지연 등이 힘을 빼고 선보이는 연기도 눈길을 끈다.

heeva@yna.co.kr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작은 거인’ 김남수 목사를 뵈고...

속이 확 트인다. 너른 바다를 만나서도 아니다. 햇살 좋은 바닷가 백사장 만나서도 아니다. 작은 체구에 단 한 번을 걷지 않고 뛰며 달리는 여든을 훌쩍 넘긴 노 목사라는 표현도 송구스러운 나이든 청년’ 작은 거인 ‘김남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50th Anniversary of Promise Church 16th Anniversary of 4/14 Window Movement”  
” Celebration and Reunion”

“〈환영과 안내의 말씀〉 이번 크루즈 선상 축제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회복,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내문에는 크루즈 내에서 진행될 주요 일정, 식사 시간과 장소, 예배 일정, 객실 위치, 복장 안내 등 여행 중 필요한 정보가 간략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섬김이나 크루즈 승무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_프라이스 교회

이번 여행은 우연하게 교회의 광고를 보고 참여를 하게 되었다. 이유는 이번 프라미스 50주년 기념 ‘크루즈 선교여행’에 세계 선교사님들이 많이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2025년 1월부터 시작한 <뉴욕선교센터>와 관련된 일기기에 기도하며 참석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가깝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과 함께 가려고 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렵게 되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와싱턴 버지니아에 사는 맨하탄전도를 함께 하던 집사님 한 분이 함께 가겠노라고 전해왔다. 참 잘됐다 싶어 룸메이트가 되었다.

10월 26일 승선 11월 2일 하선이니 7박 8일 일정의 선상의 여행이 된 것이다. 빈틈 없는 프로그램의 일정에서 ‘역시’ 라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떠나는 날을 회상하면 참으로 대단했다. 이른 아침 뉴욕에서 1,100여 명이 움직이는 대 이동의 시간이니 브루클린에 위치한 ‘크루즈 터미널’

팍팍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래도 움직이는 내내 각자의 차례를 기다리며 젠틀한 모습에 마음이 흐뭇해졌다.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주를 이룬 이번 여행은 내게도 감동의 시간이 되었다.

일정 첫날을 맞으며 아침 7시에 ‘아침경건회’ ‘를 시작으로 식사 후 축하콘서트가 이어졌다. 점심 후 부흥성회가 시작되었는데, 강사는 ‘세계로급란교회’ 담임 주성민 목사였다. 이번 선상 축제에서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된 것은 바로 주성민 목사님의 간증이였다. 목사님 가정에서 자란 이야기와 어머님과 아버님을 여윈 이야기 그리고 10번이나 신학교를 떨어졌던 가슴 아픈 이야기 무엇보다도 감동되었던 사모님을 만났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감동의 스토리였다.

그외 사역 및 간증 보고를 통해 50년 동안 프라미스 교회에서 시작했던 4/14 윈도 우 사역을 통해 세계 각처에서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확연히 볼 수 있었다. 감동의 시간이었다. 이렇듯

작은 손길들이 모여 큰 역사를 이룬 것이다. 그 뒤에서 말없이 뛰고 달려온 손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시간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저 큰 교회로만 생각했던 프라미스 교회가 더 크고 든든하게 보였다. 건물의 중심에 튼튼한 골조가 있었음을 본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시간이었다.

이렇듯 세계 각처에서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4/14 W 컨퍼런스를 통해 ‘프라미스 교회’의 역할을 더 깊이 자세히 알게되었고 원로 목사이신 ‘작은 거인’ 김남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이신 허연행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면 나는 이번 크루즈 선상 축제를 통해 무엇을 배웠으며, 무엇을 얻어왔고 또 무엇을 앞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 또 무엇인가. 이번 여행은 그 어떤 여행보다도 값지고 귀한 보석같은 여행이었다. 할렐루야 !!^^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미국의 얼굴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각국마다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다. 영국은 빨간색 2층버스는였다. 프랑스는 에펠 탑이고 미국이라면 자유의 여신상이다. 나한테 미국은 옥수수를 비롯한 여러 농산물도 떠오른다.

미중부의 아이오아는 옥수수이다. 끝없이 펼쳐지는 평원에 옥수수밭 푸른 물결이 바람에 서걱인다. 쳐다볼적이면 차라리 무서움인데 미국엔 감자도 지천이다.

아이다호 주의 감자는 유명하다. 자랑할 만 할텐데, 주민들의 대부분이 감자농사를

짓는 모양이다. 오죽하면 주정부에는 아예 감자청廳이 설치되어 있다던가. 아이다호 감자는 맥도날드의 주된 공급원이라 한다.

지금이야 감자는 맛으로 먹는다. 튀겨서 만든 프렌치 프라이가 그러하다. 사막사막한 맛이 그럴듯 한데, 왕년에 삶은 감자가 주식主食인적이 있다. 김정호 시인이다. 장모님이 보내준 감자라 했다. 장모님의 사랑이 눈물겹다.

...

장모님이 보내온 감자 한 포대 빛이 그리워 새순이 올랐다. 새순 돋은 곳마다 푸른 상처 선명하다. 그 상처 도려낸 자국 칼끝 너무 깊다. 칼끝 깊을수록 속살 더욱 희다(김정호, 감자 중에서)

감자나 옥수수나 모두 미국의 얼굴이다. 미국만큼 감자와 옥수수를 생산하는 나라도 없을지도 모르겠다. 어디 감자나 옥수수 뿐이라. 밀도 있는데, 이 또한 생산량이 어마어마하다. 주로 중서부 여러주에 걸쳐 재배되고 생산되는데, 잉여분은 해외로 수출하는건 말할 것도 없겠다.

미국서부 캘리포니아는 포도라 할수 있다. 포도주 생산량 역시 대단하다 들었다. 한편 미국남부는 목화나 담배가 산출되는 농산물이었다. 커튼필드 포크송도 있으니 말이다.

알라바마주의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한국에서 지원차 방문한 기술자들이 강제로 추방되었다는 거다. 알라바마는 목화의 주생산지였다 했는데, 언제부터 자동차공장이 있었던가.

밀밭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마가2:23)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 휴람 의료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휴람은 상담 - 예약 - 검진진행 - 사후관리를 보호자 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수면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오전 4시간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69만원 ~

- 휴람 당일종합검진 + 수면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120만원 ~

- 휴람 숙박종합검진 + 뇌MRA, 심장CT

####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240만원 ~

-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 뇌MRI, 심장초음파, 복부조영CT, 흉부(폐)CT  
갑상선초음파, 경동맥초음파 +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2일간 진행(오전 검사 시행) 437만원 ~

- 휴람 VIP종합검진 + PET-CT(전신암정밀검사), 복부비만CT, 관상동맥CT  
뇌심장정밀혈액검사 + 2일간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 휴람 의료 네트워크 병원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              |             |
|--------------|-------------|
|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 세란병원(독립문역)   | 안산한도병원(선부역) |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해외동포 특별가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성인 ADH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일 · 관계 · 삶 모두 혼돈다

**특징적 증상** 유형: ① 소아기에 발병해 성인기까지 지속  
② 성인기에 새롭게 발병  
흔히 성격 문제로 오해되어 놓치기 쉬움  
주요 증상: 집중력 저하, 물건 분실, 정리 어려움, 즉흥적 행동, 업무 지연, 감정 기복, 과몰입 행동  
성인에서는 과잉 행동보다 집중력 부족이 두드러짐

**원인** 유전적 요인  
신경학적 요인: 도파민 감소, 대뇌피질 발달 지연  
환경적 요인: 조산, 임신 중 음주 스트레스 등

**치료** 치료: 집합 교육, 약물 치료, 인지행동치료  
생활 관리: 계획 세우기, 할 일 목록, 알람 활용, 물건 정해진 장소 두기, 규칙적 생활 습관

자료제공: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흔히 아이들의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ADHD, 최근 들어서 성인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 성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성인 ADHD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 가운데 ‘업무에 집중이 잘 안돼요’ ‘사람들과 관계 맺기가 너무 힘들어요’ ‘시작한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해요’ 라고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타고난 성격과 게으름을 탓하며 자책하곤 하지만, 알고보면 성인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인 경우가 많다.  
성인 ADHD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하나는 소아기에 발병한 증상이 성인까지 이어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성인이 된 후 새롭게 발병하는 경우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한 가지 일을 끝내지 못함 △물건을 자주 잃어버림 △정리정돈이 어려움 △충동적 지출이나 즉흥적 행동 △지나친 감정 기복 △게임·음주·도박 과몰입 등이 있다.  
성인 ADHD는 뇌 발달과 신경전달물질 이상으로 생기는 의학적 질환이다. 유전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도파민 감소, 대뇌피질 발달 지연 같은 신경학적 원인도 관련이 있다. 임신 중 음주, 조산, 과도한 스트레스 같은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방지하면 학업과 직장 생활뿐 아니라 자존감, 심리적 건강, 인간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직장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져 업무 효율이 낮아지고, 마감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대인관계에서도 충동적 행

동이나 감정 기복으로 갈등이 생기기 쉽다. WHO(세계보건기구) 역시 ADHD를 직장 내 결근과 성과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 바 있다.  
물론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한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 치료에는 세 가지 축이 있다. 첫째, 환자가 질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질환 교육’. 둘째, 주의 집중력을 높이고 충동성을 줄여주는 ‘약물 치료’. 셋째, 사고와 행동 패턴을 교정하는 ‘인지행동치료’다.  
또한 생활습관 관리도 도움이 된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할 일 목록을 작성하며, 알람이나 메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물건은 정해진 자리에 두고, 규칙적인 수면과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작은 실천이지만 증상 조절과 삶의 질 향상에 분명한 차이를 만든다. 혹시 본인이나 주변에서 잦은 충동 행동, 부주의, 끝없는 미루기를 반복한다면, 전문의 상담

을 통해 확인해 보기를 권한다.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일상의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성인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일 · 관계 · 삶 모두 혼돈다”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제회법인  
호연회계법인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치과** 서비스 **휴람** 을 이용해보세요!



나이를면서 잇몸질환으로 고민이 많으시죠?  
치과의 퀄리티는 당연히 한국 치과입니다.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치료기간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신 치과치료...  
지금 상담을 통해 치료견적 확인 후 한국에서의 치과치료 준비해보세요!!!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휴람 치과 이벤트

- 1 임플란트 오스템 **[99만원~]**
- 2 임플란트 외산 **[165만원~]**
- 3 스케일링+구강검진+치아X-RAY **[5만원~]**
- 4 라미네이트 **[40만원~]**
- 5 미백 **[30만원~]**
- 6 전체틀니 **[180만원~]**
- 7 크라운 **[40만원~]**
- 8 충치치료 **[국내수가]**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치아 X-RAY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치과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미소랑치과(양재역, 발산역, 서울대역, 셋강역)  
옥스치과(강남역)  
스카이뷰치과(신논현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이메일 : [huram@huram.kr](mailto: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http://www.huramkorea.com)

#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을 받아 보는 방법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종이 신문 번갈아 매 격주로 발간됩니다. 보스톤 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매주 금요일 2만명의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고 있으며, 평균 5천명이 넘는 독자들이 이메일을 열어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문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첫째,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editor@bostonkorea.com](mailto: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이란 제목으로 이메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매 격주 PDF 지면으로 이메일을 통해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 신청 방법

1.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가입을 신청해주세요.
2. [editor@bostonkorea.com](mailto: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 BostonKorea.com 광고와 함께 확실한 비즈니스 성장을 이루어 보세요



##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law@lookjs.com

## 백영주 부동산

617.921.6979  
clarapaik@gmail.com

## 나무 건축

617.775.4771  
info@namuma.com

## 제이슨 전 부동산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 최은경 부동산

781.690.4389  
Chris.choi@compass.com

## 캠브리지 한인교회

155 Magazine Street,  
Cambridge, MA 02139

## 보스톤 그레이스 비전 한인 교회

910.670.4858  
info@gracevisionumc.org

## 성요한 교회

781.861.7799  
stjohns2600@hotmail.com

##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info@songkkimlaw.com

## 수잔 리 부동산

339.224.1512  
susan@prorealty.group

## 켈리 김 모기지

617.733.5014  
kkimthielen@radiusgrp.com

## Grace Kim 보험

978.800.3467  
grace.kim@ebshealth.us

# Hmart

hmart.com



##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2



3



###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톡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